

地方自治意識에 關한 實態報告 (1)

1964 年度

盧 隆 熙

— 目 次 —

一. 緒 言	度
二. 調查計劃	九. 地方稅制에 對한 態度
三. 一般政治意識의 實態	一〇. 政治參與意識
四. 地方選舉의 投票率	一一. 地方政府職員의 對民關係
五. 地方住民의 議會觀	一二. 地方自治團體單位決定에 對한 見解
六. 執行機關選任方法 (以上本號)	一三. 結論
七. 人物判斷基準 (以下次號)	
八. 地方自治制에 關한 知識度 · 關心	

一. 緒 言

우리 나라에서 自治意識이라는 것이 問題된 것은 政府樹立後 地方自治制의 實施에 따라 住民自治의 概念이 導入되어 그것이 政治的으로 重要한 意義와 役割을 지니게 되면서 부터 비롯된 것으로 안다. 自治意識이라는 말은一般的으로 使用되면서도 그것이 正確히 무엇을 意味하는지는 分明치 않았으며 一般政治意識과의 關係에서도 이 用語를 使用하는 境遇와 사람에 따라 意見을 달리해 왔다. 이러한 現象은 地方自治 自體에 對한 認識의 差異에서 오는 것이며 그에 關한 認識如何에 따라 自治意識에 對한 觀點도 根本적으로 달라지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觀點에서 보든 自治란 住民의 政治意識이 그 基礎가 된다는 것은 明確하다. 그런데 그 政治意識이 무엇인가에 對해서는 「一般的으로 사람들이 政治一般 또는 特定한 政治問題에 關해서 갖는 見解, 思考方式 및 거기서 起因하는 行動樣式」이라는 定義가 妥當한다고 보겠으나 意識을 行動에 까지 擴張하는 일은 그 自體가 하나의 問題로서 특히 우리나라의 境遇와 같이 흔히 意識과 行動이 背反하거나 一致하지 않는 때는 더구나 그러하다. 따라서 本調査에서는 政治意識을 그 見解와 思考方式에 限定하고 自治意識은 自治政에 對한 見解와 思考方式에 限定하여 「住民이 自治政一般 또는 特定한 問題에 關하여 갖는 見解와 思考方式」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어느 境遇에서나 마찬가지로 意識이라고 하는 것은 直接 計數的으로 測定할수 있는 對象이 못됨으로 그 實態를 把握하기란 至極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本調査에서는 地方自治와 自治意識의 關係를 中心으로 地方住民의 自治政에 對한 關心度·知識度, 態度 및 價值觀 等을 測定함으로서 間接的 傍證的으로 自治意識의 實態를 把握하려 하였다.

우리는 地方自治制度의 確立과 育成이라는 커다란 課題를 앞에 두고 民主主義라는 崇高한 價值觀과 當面한 能率의 要求를 調和시켜 나갈수 있는 方案을 檢索中에 있다. 그러나 從來와 같이 地方自治의 概念을 法律的인 側面으로만 把握하기 보다도 政治 社會 經濟 文化的 諸側面을 가진 하나의 有機體로 보고 地方自治가 어떻게 存立하고 어떻게 있어야만 國家目的과 調和할 수 있는 가를 考慮하여야 하며 立法에 依하여 地方自治에 關한 皮相的인 法定立을 함에 앞서 먼저 現實의 地方自治가 存在하고 있는 基礎的인 諸條件에 對한 檢討와 把握이 必要하며 그런뒤에 그러한 基礎的인 條件에 適合한 地方自治制度의 具體的인 法定立을 가져야 할것이다. 制度의 存立을 可能케하는 基礎的인 地盤의 뒷받침이 없는 制度란 그것이 外觀的으로 아무리 完備되고 理想的인 것이라 하더라도 한낱 生命잃은 屍體에 不過한 것이다.

本調査가 이러한 地方自治의 基礎的 諸條件를 具體的으로 把握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多幸한 일이겠다.

끝으로 本調査는 内務部 地方行政研究委員會가 主管해온 地方行政實態調查의 一環으로 實施된 것이며 當初에는 過去의 調査結果와 比較 檢討해볼 意圖였으나 兩者間의 時差가 짧을뿐만 아니라 制度의 變遷에 依하여 自治意識에 關係되는 地方制度가 實質的으로 없었기 때문에 時期的으로 不適하다고 생각되어 앞으로 地方自治制度가 다시 確立될때까지 保留하기로 했음을 밝혀 둔다.

二. 調査計劃

1. 調査目的

本調査의 目的是 우리나라의 地方自治制度안에서 住民이 그들의 政治生活을 通하여 느끼는 自治意識의 實態를 具體的으로 把握하려는 것이다.

2. 調査範圍

地方自治政에 關한 制度 機構 및 그 運營 公務員 選舉 및 其他 人事制度 納稅 및 其他 對民關係 等의 事項에 對한 住民의 關心度 知識度 價值觀 思考方式 見解 經驗 態度 等을 測定

한다.

3. 調査實施期間

西紀 1964 年 5 月 5 日부터 同年 5 月 18 日까지 13 日間

4. 調査地域

大都市地域	서울	白鹿洞
		金北洞
中都市地域	光州	社龜洞
小都市地域	京畿	平澤邑
僻村地域	京畿	西炭面
	慶南	陝川面
	忠北	槐山面
	全北	茂朱面

(1) 以上 8 個地域을 文化程度를 基準으로 하여 大都市 中都市 小都市 僮村等 4 個地區로 分類 選定하되 全國 各地方을 고루 代表하게 했으며 (2) 調査地域의 크기는 市에서는 洞 郡에서는 面을 單位로 하였다.

5. 調査對象者

各地域別로 平均 75 名을 選定하여 總調查對象者數를 666 名으로 하되 職業 教育程度 年齡 宗教 性 生活程度 等의 性分이 可能한限 고루 配分되도록 하였다. 調査對象者の 狀況을 地域別로 보면 다음과 같다.

區分 地城別	有權者數	抽出間隔	標本數	回収者數
白鹿洞	5,240	70	74	63
金北洞	18,596	250	76	65
社龜洞	5,250	70	75	71
平澤邑	12,345	164	75	73
西炭面	3,854	51	75	73
陹川面	7,800	100	78	65
槐山面	7,300	100	73	57
茂朱面	8,763	60	140	77
計	69,148	104	666	544

6. 調査方法

먼저 調査目的에 맞는 調査項目을 選定하여 調査表를 作成하고 回收率을 높이기 위하여 標準化面接調查法을 擇하였으며 調査表에는 37個의 質疑項目과 其他 記載事項을 담되 理解하기 쉽도록 用語의 使用에 留意하였다.

標本抽出에 있어서는 系統的 標集法 (Systematic Sampling Method)을 使用하고 標集單位의 目錄上에 偏奇性이 介入할 우려가 있음으로 最初의 事例는 第一 抽出間隔의 中間을 取하였으며 標集의 誤差는 信賴係數를 0.95로 하여 4.2%이다.

7. 資料의 分析과 解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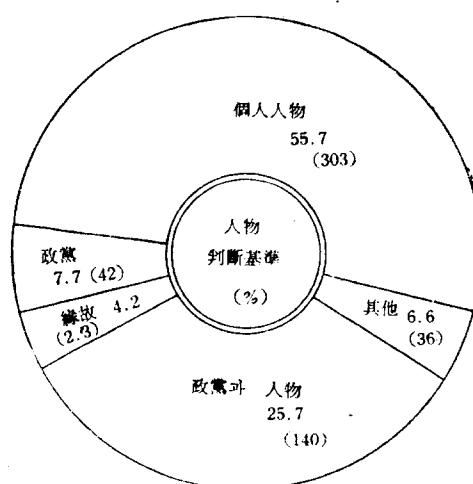
蒐集된 資料를 集計 整理하되 統計的 記述은 百分比率의 算出과 그 製表에 依하여 頻度를 比較하고 母集團의 特性을 推定할 수 있게 하였다.

三. 一般政治意識의 實態

自治意識이란 自治政에 있어서의 住民의 政治意識임으로 그 基盤을 알수 있는前提로서 먼저 住民의 一般政治意識을 究明해 볼 必要가 있다.

現代와 같이 政黨政治時代에 있어서는 住民의 政治意識은 政黨問題를 中心으로 가장 잘 나타나기 마련인데 먼저 選舉 때 무엇을 基準으로 하여 住民이 投票하는지를 調査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表 1-1 選舉時 무엇을 보고 投票하는가?



圖表 1-2

選舉때 무엇을 보고 投票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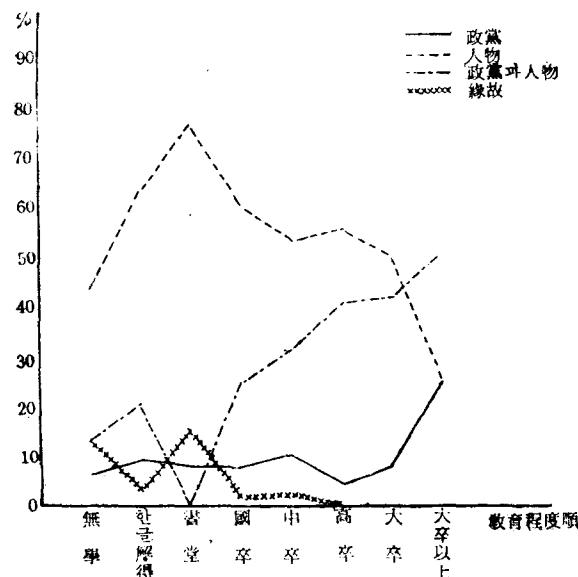
地域別	區 分	政 党	人 物	政黨對人物	緣 故	其 他	計
陝	川	2 (3.1)	36 (55.4)	17 (26.2)	6 (9.2)	4 (6.2)	65 (100)
槐	山	6 (10.5)	24 (42.1)	22 (38.6)	3 (5.3)	2 (3.5)	57 (〃)
社	龜	4 (5.6)	30 (42.3)	30 (42.3)	2 (2.8)	5 (7.0)	71 (〃)
平	澤		33 (45.2)	22 (30.1)	1 (1.4)	10 (13.7)	73 (〃)
白	鹿	5 (7.7)	52 (82.5)	8 (12.7)		3 (4.8)	63 (〃)
金	北	9 (11.7)	40 (61.5)	13 (20.0)	4 (6.2)	3 (4.6)	65 (〃)
茂	朱	9 (2.3)	47 (61.0)	12 (15.6)	6 (7.8)	3 (3.9)	77 (〃)
西	炭		41 (56.2)	16 (21.9)	1 (1.4)	6 (8.2)	73 (〃)
	計	42 (7.7)	303 (55.7)	140 (25.7)	23 (4.2)	36 (6.6)	544 (100)

圖表 1-3

選舉때 무엇을 보고 投票하는가?

教育程度別	區 分	政 党	人 物	政黨對人物	緣 故	其 他	計
無	學	7 (6.8)	45 (43.7)	14 (13.6)	14 (13.6)	23 (22.3)	103 (100)
한	글 解 得	8 (9.9)	51 (62.9)	17 (21.0)	3 (3.7)	2 (2.5)	81 (〃)
書	堂	1 (7.7)	10 (76.9)		2 (15.4)		13 (〃)
國	卒	14 (8.0)	106 (60.2)	43 (24.4)	3 (1.7)	10 (5.7)	176 (〃)
中	卒	5 (10.7)	25 (53.2)	15 (31.9)	1 (2.1)	1 (2.1)	47 (〃)
高	卒	3 (4.1)	41 (55.4)	30 (40.5)			74 (〃)
大	卒	3 (8.0)	24 (50.0)	19 (42.0)			50 (〃)
大	卒 以 上	1 (25.0)	1 (25.0)	2 (50.0)			4 (〃)
	計	42 (7.7)	303 (55.7)	140 (25.7)	23 (4.3)	36 (6.6)	54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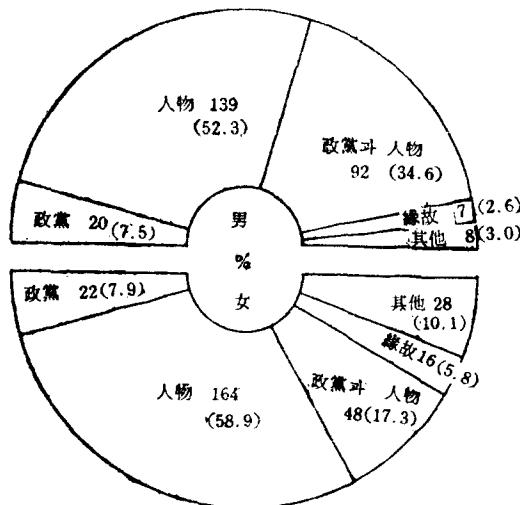
圖表 1-4 選舉때 무엇을 보고 投票하는가?



1-5

性別 區 分	政黨	人物	政黨斗人物	緣故	其他	計
男	20 (7.5)	139 (52.3)	92 (34.6)	7 (2.6)	8 (3.0)	266 (100)
女	22 (7.9)	164 (58.9)	48 (17.3)	16 (5.8)	28 (10.1)	278 (〃)
計	42 (7.7)	303 (55.9)	140 (25.7)	23 (4.3)	36 (6.6)	544 (100)

1-6



1-7

選舉 때 무엇을 보고 投票하는가?

生活程度別 區 分	政黨	人物	政黨斗人物	緣故	其他	計
上	1 (4.8)	14 (66.7)	4 (19.0)	2 (9.5)		21 (100)
中	14 (7.7)	98 (53.5)	60 (32.8)	4 (2.2)	7 (3.8)	183 (〃)
下	27 (7.9)	191 (56.1)	70 (20.5)	17 (5.0)	29 (8.5)	340 (〃)
計	42 (7.7)	303 (55.9)	140 (25.7)	23 (4.3)	36 (6.6)	544 (100)

1-8

年齡別 區 分	政黨	人物	政黨斗人物	緣故	其他	計
20~29	15 (11.4)	76 (57.5)	35 (26.5)	1 (0.8)	5 (3.8)	132 (100)
30~39	14 (8.7)	86 (53.4)	54 (33.5)	2 (1.3)	5 (3.1)	161 (〃)
40~49	6 (5.8)	58 (56.3)	27 (26.2)	5 (4.9)	7 (6.8)	103 (〃)
50~59	4 (4.9)	48 (59.3)	13 (16.0)	8 (9.9)	8 (9.9)	81 (〃)
60~69	2 (4.2)	23 (47.9)	10 (20.8)	6 (12.5)	7 (14.6)	48 (〃)
70~79	1 (6.3)	9 (56.1)	1 (6.3)	1 (6.3)	4 (25.0)	16 (〃)
80以上		3 (100)				3 (〃)
計	42 (7.7)	303 (55.7)	140 (25.7)	23 (4.3)	36 (6.6)	544 (100)

1-9

職業別		區 分	政 党	人 物	政黨斗人物	緣 故	其 他	計
無農	職業	17 (7.4)	129 (55.8)	49 (21.2)	12 (5.2)	24 (10.4)		231 (100)
商	業	11 (7.0)	88 (56.1)	46 (29.3)	7 (4.5)	5 (3.2)		157 (〃)
公	務員	7 (12.7)	25 (45.5)	16 (29.1)	3 (5.5)	4 (7.3)		55 (〃)
會	社員	2 (8.0)	12 (48.0)	17 (44.0)				25 (〃)
勞	動者	1 (8.3)	8 (66.7)	3 (25.0)				12 (〃)
土	木業	2 (5.4)	25 (77.6)	6 (16.2)	1 (2.7)	3 (8.1)		37 (〃)
學	生	1 (20.0)	3 (60.8)	1 (20.0)				5 (〃)
外	비스業	8 (88.7)	1 (11.1)					9 (〃)
計		1 (7.7)	5 (38.5)	7 (53.8)				13 (〃)
		42 (7.7)	303 (55.9)	140 (25.7)	23 (4.3)	36 (6.6)		544 (100)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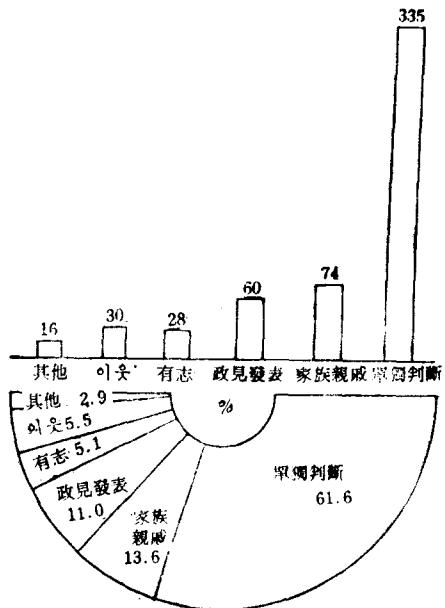
宗教別		區 分	政 党	人 物	政黨斗人物	緣 故	其 他	計
佛	教	5 (10.4)	31 (64.6)	5 (10.4)	4 (8.3)	3 (6.3)		48 (100)
基	督教	6 (11.3)	27 (50.9)	17 (32.1)		3 (5.7)		53 (〃)
天	主教	1 (3.1)	16 (50.0)	10 (31.3)	1 (3.1)	4 (12.5)		32 (〃)
儒	道教	2 (7.1)	14 (50.0)	10 (35.7)	1 (3.6)	1 (3.6)		28 (〃)
天	道教			1 (50.0)	1 (50.0)			2 (〃)
其	他		3 (42.9)	3 (42.9)	1 (14.3)			7 (〃)
無	宗教	28 (7.4)	212 (56.4)	95 (25.3)	16 (4.3)	25 (6.6)		376 (〃)
計		42 (7.7)	303 (55.9)	140 (25.7)	23 (4.3)	36 (6.6)		544 (100)

1-11

出身地別		區 分	政 党	人 物	政黨斗人物	緣 故	其 他	計
本	고장	20 (6.8)	157 (53.6)	81 (27.6)	18 (6.1)	17 (5.8)		293 (100)
本	道他郡	8 (6.5)	71 (57.3)	33 (26.6)	2 (1.6)	10 (8.1)		124 (〃)
他	道	8 (8.3)	56 (58.3)	21 (21.9)	3 (3.1)	8 (8.3)		96 (〃)
以	北	5 (17.9)	18 (64.3)	4 (14.3)		1 (3.6)		28 (〃)
其	他	1 (33.3)	1 (33.3)	1 (33.3)				3 (〃)
計		42 (7.7)	303 (55.9)	140 (25.7)	23 (4.3)	36 (6.6)		544 (100)

위의 圖表에 나타난 바와 같이 全體的으로 보아 「人物」을 基準으로 하는 率이 55.7%로 過半數를 차지하고 있는데 比하여 「政黨」을 基準으로 하는 率은 7.7%에 不過한 것으로 보아 「人物」이라는 基準이 投票行動에 얼마나 큰 役割을 하고 있는지 짐작케 한다. 政黨과 人物의 兩面을 다 參考하겠다는 率은 25.7%로 約四分の一에 該當하는데 自己의 政見에 合致하는 사람에게만 投票하려는 사람은 必然的으로 政黨을 基準으로 할 수 밖에 없다는 見地에서 생각하면 이 部類에 屬하는 사람은 차라리 人物本位主義에 가깝다고 보아야 옳을 것

■表 2-1 投票할 사람을 어떻게 判斷하는가?



이다.

이를 地域別로 보면 人物本位로 投票하는 率이 높다는 點에서 大同小異하나 大都市인 서울에서 白鹿洞과 金北洞이 각각 82.5% 71.5%로서 最高率을 보이고 있음을 注目할만 하며 血緣 地緣 等緣故에 따르는 率은 農村에서 더 높다. 다시 教育程度別로 보면 學力에 關係없이 「人物」에 高率을 나타내는 反面 「政黨」에는 極히 낮은 反應을 보이나 「政黨과 人物」에서는 教育程度에 正比例하여 上昇하는 傾向을 보이며 男女性別로는 男子가 「政黨과 人物」에서 女子보다 더 高率을 보이는 點을 除하고는 「人物本位에 置重하는 點과 政黨을 無視하는 點이 男女가 比等하다. 한편 生活程度別로는 亦是 人物本位에 다 같이 高率을 보이면서도 上流層에서 더 高하고 年齡別로는 「政黨」을 基準으로 하는 率이 年齡順에 逆比例하여 減小하는 反面 「緣故」를 基準으로하는 率은 正比例해서 增加하는 傾向을 除하고는 大同小異하다. 또한 職業別로는 人物本位의 投票率이 學生과 勞動者層에서 가장 높은 比率을 보여 각각 88.7% 77.6%에 達하며 「緣故」를 따르는 率은 無職 農業 商業에서 大部分이 나타나고 있으며 宗教別로 뚜렷한 差異를 찾을 수 없다. 出身地別로 보면 「人物本位」의 投票率이 以北出身에서 가장 높고 「緣故」를 基準으로 하는 사람이 全無하다.

이제 問題를 바꾸어서 住民이 選舉에 앞서 自己가 投票할 사람을 어떻게 判斷하는지를 調查해본 結果는 다음과 같다. 다음의 그라프에서 알 수 있듯이 自己 單獨의 判斷으로 投票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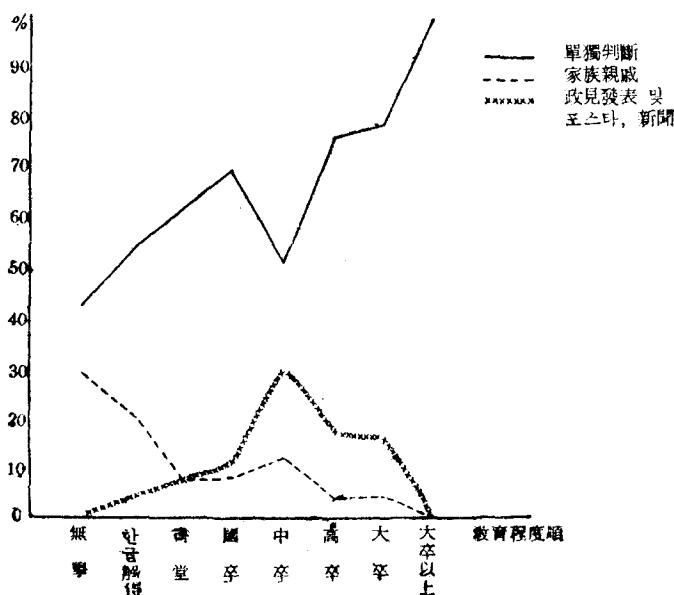
는 比率이 壓倒的이어서 61.6%에 達한다.

다음으로는 家族 親戚의 意見을 듣고서 投票하는 率의 比重이 크고 이어서 「政見發表表, 포스타, 新聞」等에 依해서 「이웃사람의 말을 듣고」「有志意見」을 「參酌하여」의 順으로 되어 있다. 「나 혼자의 判斷으로」 投票하는 比率에 있어서 大都市地域인 서울의 白鹿洞에서 84.1%라는 高率을 보이고 有志나 이웃의 意見을 全然 參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點은 注目할 만 하며 地域社會의 共同意識이 稀薄한 大都會의 特性이反映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는 地域의 都市化에 關係없이 單獨으로 判斷하는 率이 比等하게 높은데 여기서 이러한 判斷方式을 좀더 檢討하여 보면 아무리 單獨으로 判斷한다고 해도 政見發表나, 新聞廣告

2-2

地域別 區分	其　他　計						
	單　獨	有　志	이　웃	家　族　親　戚	政　見　發　表 포스타, 新聞	其　他	計
陝　川	39 (60.0)	6 (9.2)	8 (12.3)	7 (10.8)	4 (6.2)	1 (1.5)	65 (100)
槐　山	33 (57.9)	2 (5.2)	8 (14.0)	10 (17.5)	2 (3.5)	2 (3.5)	57 (〃)
社　龜	38 (53.5)	4 (5.6)	1 (1.4)	12 (16.9)	12 (16.9)	3 (4.2)	71 (〃)
平　澤	40 (54.8)	9 (12.3)	5 (6.8)	6 (8.2)	12 (16.4)	1 (1.4)	73 (〃)
白　鹿	53 (84.1)			1 (1.6)	4 (6.4)	5 (7.9)	63 (〃)
金　北	38 (58.5)		1 (1.5)	17 (26.2)	7 (10.8)	2 (3.1)	65 (〃)
茂　朱	50 (64.9)	3 (3.9)	3 (3.9)	12 (15.6)	8 (10.4)	1 (1.3)	77 (〃)
西　炭	44 (60.3)	4 (5.5)	4 (5.5)	9 (12.3)	11 (15.1)	1 (1.4)	73 (〃)
計	335 (61.6)	28 (5.1)	30 (5.5)	74 (13.6)	60 (11.0)	16 (2.9)	544 (100)

圖表 2-4 投票할 사람을 어떻게 判斷하는가?



라디오와 같은 mass communications 와 周囲의 影響을 直接 間接으로 받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임으로 다만 最終的으로 自己 主見에 依해서 決定한다는 程度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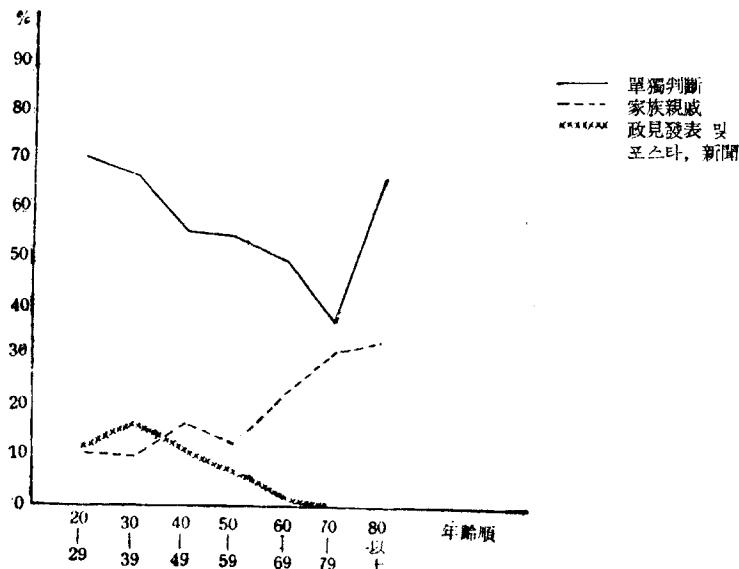
區分 教育程度別	單獨	有志	이웃	家族親戚	政見發表 포스타, 新聞	其 他	計
無學	44 (42.7)	9 (8.7)	15 (14.6)	30 (29.1)		5 (4.9)	103 (100)
한글解得	43 (53.1)	4 (4.9)	10 (12.3)	17 (21.0)	4 (4.9)	3 (3.7)	81 (〃)
書堂	8 (61.5)	3 (23.1)		1 (7.7)	1 (7.7)		13 (〃)
國卒	121 (69.3)	8 (4.5)	4 (2.3)	15 (8.5)	20 (11.4)	7 (4.0)	176 (〃)
中卒	24 (51.0)	3 (6.4)		6 (12.8)	14 (29.8)		47 (〃)
高卒	56 (75.6)		1 (1.4)	3 (4.1)	13 (17.5)	1 (1.4)	74 (〃)
大卒	35 (78.1)	1 (2.0)		2 (4.1)	8 (16.1)		50 (〃)
大卒以上	4 (100)						4 (〃)
計	335 (61.6)	28 (5.3)	30 (5.5)	74 (13.6)	60 (11.0)	16 (3.0)	544 (100)

2-5

區分 性別別	單獨	有志	家族親戚	이웃	政見發表 포스타, 新聞	其 他	計
男	177 (66.5)	17 (8.3)	12 (4.5)	14 (5.3)	42 (15.8)	3 (1.1)	226 (100)
女	158 (56.7)	11 (4.0)	62 (22.3)	16 (5.8)	18 (6.5)	13 (4.7)	278 (〃)
計	335 (61.6)	28 (5.1)	74 (13.6)	30 (5.5)	60 (11.0)	16 (2.9)	544 (100)

教育程度別로 보면 單獨判斷에 依한 投票率은 教育程度에 正比例해서 有志 이웃 家族 親戚의 意見을 參酌하는 率은 反比例해서 다시 政見發表 포스타 新聞 等에 依해서 投票하는

2-7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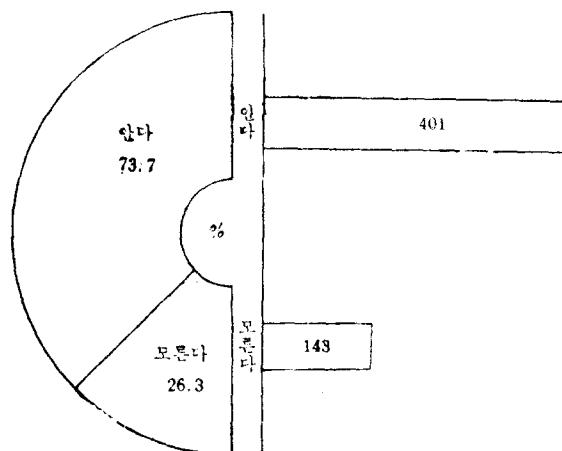
年齢別 区分	單獨	有志	이우	家族親戚	政見發表 포스터, 新聞	其 他	計
20~29	93 (70.4)	8 (6.1)	1 (0.8)	14 (10.6)	15 (11.3)	1 (0.8)	132 (100)
30~39	108 (67.1)	4 (2.5)	5 (3.1)	16 (9.9)	26 (16.1)	2 (1.3)	161 (〃)
40~49	58 (56.2)	5 (4.9)	9 (8.7)	17 (16.5)	12 (11.7)	1 (1.0)	103 (〃)
50~59	44 (54.3)	7 (8.6)	9 (11.1)	10 (12.3)	6 (7.5)	5 (6.2)	81 (〃)
60~69	24 (50)	3 (6.3)	6 (12.5)	11 (22.8)	1 (2.1)	3 (6.3)	48 (〃)
70~79	6 (37.4)	1 (6.3)		5 (31.3)		4 (25.0)	16 (〃)
80以上	2 (66.7)			1 (33.3)			3 (〃)
計	335 (61.6)	28 (5.1)	30 (5.5)	74 (13.6)	60 (11.0)	16 (2.9)	544 (100)

2-8

職業別 区分	單獨	有志	이우	家族親族	政見發表 포스터, 新聞	其 他	計
無職業	127 (55.0)	7 (3.0)	10 (4.3)	54 (23.4)	20 (8.7)	12 (5.2)	231 (100)
農業	101 (64.3)	9 (5.7)	15 (9.6)	14 (8.9)	16 (10.2)	2 (1.3)	157 (〃)
商業	31 (56.4)	6 (10.9)	4 (7.3)	3 (5.5)	10 (18.2)	1 (1.8)	55 (〃)
公務員	19 (76.0)	1 (4.0)		1 (4.0)	4 (16.0)		25 (〃)
會社員	11 (97.1)				1 (8.3)		12 (〃)
勞動者	21 (56.8)	4 (10.8)	1 (2.7)	2 (5.4)	8 (21.6)	1 (2.7)	37 (〃)
土木業	5 (100)						5 (〃)
學生	9 (100)						9 (〃)
サービス業	11 (84.6)	1 (7.7)			1 (7.7)		13 (〃)
計	335 (61.6)	28 (5.1)	30 (5.5)	74 (13.6)	60 (11.0)	16 (2.9)	544 (100)

率은 正比例해서 각각 增減하는 傾向을 보이며 男女性別로는 男子가 女子보다 單獨判斷과

■表 3-1 당선의 選舉區에서 當選된 國會議員이 누군지아는가?



政見發表 포스타 신문 等에 더 置重하며 女子는 男子보다 五倍나 더 家族 親戚의 意見에 따름으로서 22.3%에 達하는 現象을 보이고 있다. 年齡別로는 「單獨判斷」과 「政見發表 포스타 新聞 等」에 依하는 率은 年齡順에 反比例해서 增加하여 二十代에서 最高率 70.4%의 單獨判斷에 依한 投票率을 보이는 反面 「家族 親戚 이웃」의 말을 듣고 投票하는 率은 年齡順에 正比例해서 增加하고 있다. 다시 職業別로 考察하건대 單獨判斷으로 投票하는 率은 會社員土木業 學生 service 業에서 각각 91.7% 100% 100% 84.6%로 最高率을 나타내고 主婦가 大部分을 點하는 無職에서는 家族이나 親戚의 말을 듣는 率이 가장 높아서 23.4%에 達하며 勞動者는 누구보다도 政見發表나 포스타 新聞等에 依하는 率이 높은 傾向을 보이는 것은 興味있는 일이다.

이번에는 項目을 바꾸어서 國會議員選舉實施後에 自己가 投票한 사람의 當落與否를 알고 있는지에 對한 有權者의 關心度를 살펴보자.

앞에 提示한 그라프에 나타난바와 같이 全體的으로 當選된 사람이 누구인가를 「안다」는 比率이 壓倒的인 多數로서 73.7% 對 26.3%의 差異를 보이면서도 特히 僵地인 茂朱地區에서 「모른다」는 率이 「안다」는 率에 比해서 더 높다는 點과 서울의 白鹿洞에서 「안다」는 率이 95.2%로 最高率을 나타내고 있음을 注意된다.

3-2

地域別	區分		
	안 다	모른다	計
漢川	51 (78.5)	14 (21.5)	65 (100)
槐山	47 (82.5)	10 (17.5)	57 (〃)
社龜	58 (81.7)	13 (18.3)	71 (〃)
平澤	56 (76.7)	17 (23.3)	73 (〃)
白鹿	60 (95.2)	3 (4.8)	63 (〃)
金北	41 (63.1)	24 (36.9)	65 (〃)
茂朱	37 (48.1)	40 (51.9)	77 (〃)
西炭	51 (69.9)	22 (30.1)	73 (〃)
計	401 (73.7)	143 (26.3)	544 (100)

3-3

教育程度	區分		
	안 다	모른다	計
無學	38 (36.9)	65 (63.1)	103 (100)
한글解得	50 (61.7)	31 (38.3)	81 (〃)
書堂	12 (92.3)	1 (7.7)	13 (〃)
國卒	138 (78.4)	38 (21.6)	176 (〃)
中卒	43 (91.5)	4 (8.5)	47 (〃)
高卒	72 (97.3)	2 (2.7)	74 (〃)
大卒	44 (95.0)	2 (4.3)	46 (〃)
大卒以上	4 (100)		4 (〃)
計	401 (73.7)	143 (26.3)	544 (100)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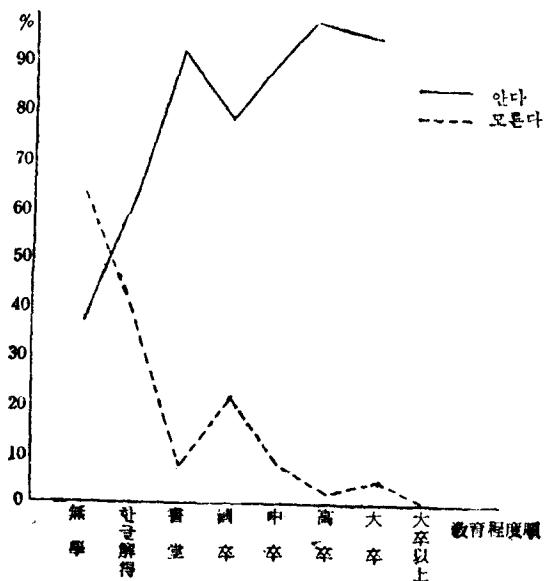
生活程度	區分		
	안 다	모른다	計
上	18 (85.7)	3 (14.3)	21 (100)
中	158 (86.3)	25 (13.7)	183 (〃)
下	225 (66.2)	115 (33.8)	340 (〃)
計	401 (73.7)	143 (26.3)	544 (100)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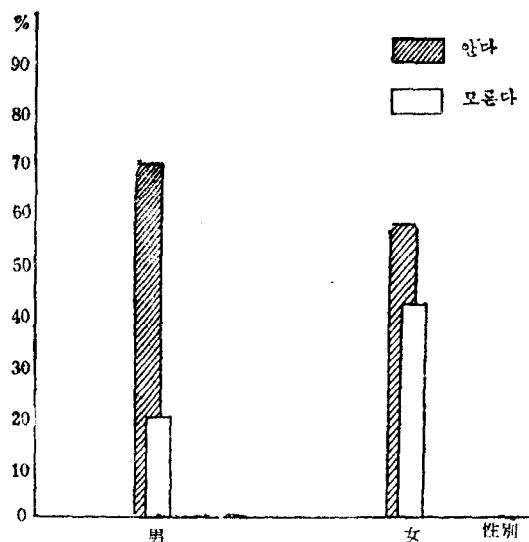
性別	區分		
	안 다	모른다	計
男	240 (70.2)	26 (19.8)	266 (100)
女	161 (57.9)	117 (42.1)	278 (〃)
計	401 (73.7)	143 (26.3)	544 (100)

이제 이것을 教育程度別로 보면 「안다」는 서법의 比率이 教育程度에 正比例해서 上昇하되

3-6



3-7



無學과 大卒은 각각 36.9% 96%로서 顯著한 差異를 보이는 反面 「모른다」는 사람의 比率은 教育程度에 反比例해서 增大하고 있는데 다른 境遇에서와 같이 書堂出身이 언제나 高等教育程度에서 나타나는 傾向과 一致하고 있는 點은 注目되어 여기서는 「안다」는 率이 92.3의 高率을 示顯하고 있다.

3-8

年齢別 區分	한 다			計
	안	다	모른다	
20~29	107 (81.1)	25 (18.9)	132 (100)	
30~39	129 (80.1)	32 (19.9)	161 ("")	
40~49	71 (68.9)	32 (31.1)	103 ("")	
50~59	57 (70.4)	24 (29.6)	81 ("")	
60~69	29 (60.4)	19 (39.6)	48 ("")	
70~79	7 (43.8)	9 (56.2)	16 ("")	
80以上	1 (33.3)	2 (66.7)	3 ("")	
計	401 (73.7)	143 (26.3)	544 (100)	

3-9

職業別 區分	한 다			計
	안	다	모른다	
無職	150 (64.9)	81 (35.1)	231 (100)	
農業	117 (74.5)	40 (25.5)	157 ("")	
商業	44 (80.0)	11 (20.0)	55 ("")	
公務員	25 (100)			25 ("")
會社員	12 (100)			12 ("")
勞動者	30 (81.1)	7 (18.9)	37 ("")	
土木業	3 (60.0)	2 (40.0)	5 ("")	
學生	9 (100)			9 ("")
서비스業	11 (84.6)	2 (15.4)	13 ("")	
計	401 (73.7)	143 (26.3)	544 (100)	

生活程度別로 보아서는 「안다」는 比率이 中流 上流에서 높고 「모른다」는 比率은 反對로 下流層에서 높으며 男女性別로는 「안다」는 率이 男子는 90.2%로 거의 다가 여기에 屬하는 데 比하여 女子는 57.9%이고 「모른다」는 率에서 女子는 男子보다 훨씬 上昇하고 있다. 年齡別로는 젊을수록 「안다」는 사람이 많고 나이가 높을수록 「모른다」率이 높으며 職業別로 보아서는 公務員 會社員 學生의 「안다」는 比率이 높고 「모른다」는 사람은 主婦가 大部分을 點하는 無職과 農業 土木業에서 比重이 크다.

이상의 調査結果가 나타내는 主要한 傾向을 要約해보면 (1) 投票의 基準은 「人物本位」로 하고 政黨을 無視하며 (2) 投票對象者の 決定은 個個人의 「單獨判斷에 依하고 (3) 選舉後에 當選된 사람을 「모른다」는 比率이 적지않다는 것이다.

政治意識은 政黨의 問題 特히 政黨支持의 問題에서 가장 端的으로 表現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國民이 政黨이나 政策을 基準으로 投票하기 보다는 人物本位主義로 投票를 한다는 事實은 그 原因이 國民의 政治教育이 未熟함과 政黨自體의 未成熟에 있어서 政黨自身의 責任도 크지마는 根本的으로는 大衆의 政治意識을 潤養하기는 커녕 도리어 低度에 놀려 놓는 政治의 方式에 또 그러한 政治的 風土속에 泰然히 生活하고 있는 國民自身에게 있다고 보아야겠다. 政治力を 結集하고 그것을 表現하는 길은 오직 政黨에 依하는 수 밖에 없는데 이 政黨에 對한 우리나라 國民의 信賴度가 極히 낮으며 오히려 不信한다는 말이 옳을 程度이고 國民의 大部分이 從來의 因襲에 따라 政黨의 支配나 政黨外의 人物에 依한 支配에 相關없이 結果的으로 좋은 政治를 해주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式의 생각을 하고 있으며 無所屬의 位置에서 國民의 支持를 얻을 수 있다는 事實은 이를 證明해준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政黨이라는 것의 未成熟인데 政黨으로서 責任있는 政府를 組織해본 經驗이 적고 또 國民의 信賴를 充分히 받아 그 政治意識을支配할 程度에 이르지 못한데에 問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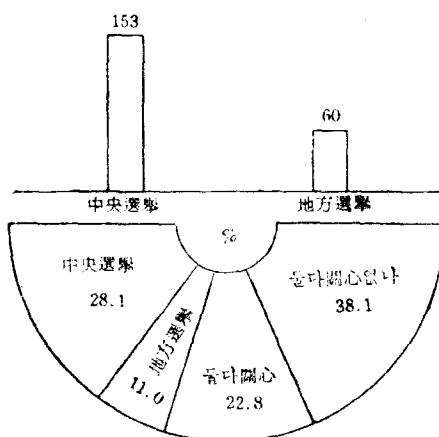
이와 같이 國民一般의 政治意識이 낮다는 點이 認定되면서도 投票의 基準을 人物에다 두

는데는若干의 政治自體에 對한 關心을 나타나고 있다는 點을 考慮해볼 餘地가 있다.

다음 投票對象者를 自己「單獨의 判斷으로 選擇 決定한다」는 比率이 壓倒的인 것은 一見住民의 投票에 對한 主體意識이 強한 것처럼 보이나 實相 嚴格한 意味에서 「單獨判斷」이란 있을 수 없고 直接 間接으로 周圍의 人的 環境이나 廣告 宣傳物 배스콤 等에 依해서 影響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點을 考慮하면 이의한 傾向은 오히려 政見發表 포스터新聞 等에 依해서 表現되는 政黨의 政綱에 無關心하다는一面을 間接的으로 暗暗裡에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國會議員의 選舉後 投票한 사람이 當選되었는지의 興否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이 26.3%로서 四分之一을 넘고 있는 現象은 選舉에 對한 無關心度와 더 나아가서는 政治意識이 稀薄하다는 例證이 된다. 結論的으로 政黨과 政策을 보고 投票하는 사람을 確實한 政治意識의 所有者라고 본다면 그 比率은 7.7%임으로 우리國民의 政治意識은 크게 잡아도 10%를 넘지

圖表 4-1 中央選舉와 地方選舉中 어느쪽에 더 關心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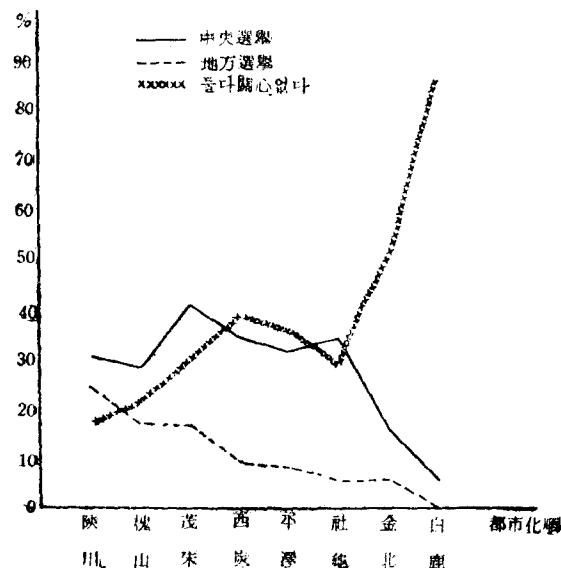
4-2

地域別	中央選舉	地方選舉	총 다 關 心	총 다 關 心 없 다	計
陝 川	20 (30.8)	16 (24.6)	18 (27.7)	11 (16.9)	65 (100)
槐 山	16 (28.1)	10 (17.5)	19 (33.3)	12 (21.1)	57 (〃)
社 鹽	24 (33.8)	4 (5.6)	23 (32.4)	20 (28.2)	71 (〃)
平 澤	23 (31.5)	6 (8.2)	18 (24.7)	26 (35.6)	73 (〃)
白 鹿	4 (6.3)		5 (7.9)	54 (85.7)	63 (〃)
金 北	10 (15.4)	4 (6.2)	18 (27.7)	33 (50.8)	65 (〃)
茂 朱	31 (40.3)	13 (16.9)	10 (13.0)	23 (29.9)	77 (〃)
西 炭	25 (34.3)	7 (9.6)	13 (17.8)	28 (38.4)	73 (〃)
計	153 (28.1)	60 (11.0)	124 (22.8)	207 (38.1)	544 (100)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다음에는 中央選舉와 地方選舉中에 어느것에 住民의 關心이 더 가는지를 알아 봄으로서 國政에 對한 一般政治意識과 住民의 自治意識의 問題를 比較하여 보겠다.

4-3



4-4

區分	中央選舉	地方選舉	둘다關心	둘다關心없다	計
無學	24 (23.3)	10 (9.7)	15 (14.6)	54 (52.4)	103 (100)
한글解得	33 (40.7)	8 (9.9)	18 (22.2)	22 (27.2)	81 (〃)
書堂	3 (23.1)		4 (30.8)	6 (46.1)	13 (〃)
國卒	48 (27.3)	26 (14.8)	40 (22.7)	62 (35.2)	176 (〃)
中卒	11 (23.4)	5 (10.7)	16 (34.0)	15 (31.9)	47 (〃)
高卒	15 (20.3)	9 (12.2)	20 (27.0)	30 (40.5)	74 (〃)
大卒	18 (39.1)	2 (4.1)	8 (16.0)	18 (39.1)	46 (〃)
大卒以上	1 (25.0)		3 (75.0)		4 (〃)
計	153 (28.1)	60 (11.0)	124 (22.8)	207 (38.1)	544 (100)

4-5

區分	中央選舉	地方選舉	둘다關心	둘다關心없다	計
男	90 (33.7)	35 (13.2)	73 (27.5)	68 (25.6)	266 (100)
女	63 (22.6)	25 (9.0)	51 (18.4)	139 (50.0)	278 (〃)
計	153 (28.1)	60 (11.0)	124 (22.8)	207 (38.1)	54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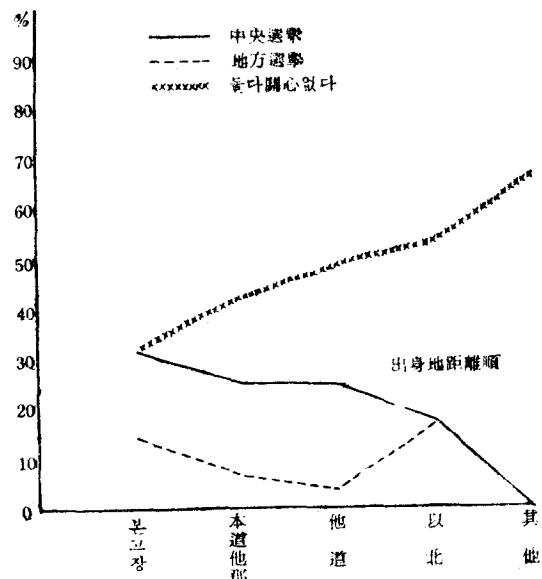
4-6

年齢別 區分	中央選舉	地方選舉	둘다關心	둘다關心없다	計
20~29	28 (21.2)	11 (8.4)	25 (18.9)	68 (51.5)	132 (100)
30~39	47 (29.2)	26 (16.1)	43 (26.7)	45 (28.0)	161 ("")
40~49	36 (35.0)	12 (11.7)	25 (24.3)	30 (29.0)	103 ("")
50~59	32 (39.5)	3 (3.7)	17 (21.0)	29 (35.8)	81 ("")
60~69	7 (14.6)	7 (14.6)	8 (16.7)	26 (54.1)	48 ("")
70~79	2 (12.5)	1 (6.3)	6 (37.5)	7 (43.7)	16 ("")
80以上	1 (33.3)			2 (66.7)	3 ("")
計	153 (28.1)	60 (11.0)	124 (22.8)	207 (38.1)	544 (100)

4-7

出身地別 區分	中央選舉	地方選舉	둘다關心	둘다關心없다	計
本고장	92 (31.4)	42 (14.3)	68 (23.2)	91 (31.1)	293 (100)
本道他鄉	32 (25.8)	9 (7.3)	31 (25.0)	52 (41.9)	124 ("")
他道	24 (25.0)	4 (4.2)	21 (21.9)	47 (49.0)	96 ("")
以北	5 (17.9)	5 (17.9)	3 (10.7)	15 (53.6)	28 ("")
其他			1 (33.3)	2 (66.7)	3 ("")
計	153 (28.1)	60 (11.0)	124 (22.8)	207 (38.1)	544 (100)

4-8



위의 圖表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선 全體的으로 보아 「둘다關心없다」는 比率이 38.1%로 가장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點이 注目되며 「中央選舉와 地方選舉의 比率은 각각 28.1

4-9

生活程度別 區分	中央選舉	地方選舉	둘다關心	둘다關心없다	計
上	5 (23.8)	2 (9.6)	4 (19.0)	10 (47.6)	21 (100)
中	62 (33.9)	19 (10.4)	41 (22.4)	61 (33.3)	183 (〃)
下	86 (25.3)	39 (11.5)	79 (23.2)	136 (40.0)	340 (〃)
計	153 (28.1)	60 (11.0)	124 (22.8)	207 (38.1)	544 (100)

4-10

職業別 區分	中央選舉	地方選舉	둘다關心	둘다關心없다	計
無職	47 (20.3)	17 (7.4)	45 (19.5)	122 (52.8)	231 (100)
農業	52 (33.1)	24 (15.3)	46 (29.3)	35 (22.3)	157 (〃)
商業	21 (38.2)	8 (14.5)	11 (20.0)	15 (27.3)	55 (〃)
公務員	10 (40.0)	5 (20.0)	5 (20.0)	5 (20.0)	25 (〃)
會社員	2 (16.7)	1 (8.3)	5 (41.7)	4 (33.3)	12 (〃)
勞動者	12 (32.4)	4 (10.8)	7 (18.9)	14 (37.8)	37 (〃)
土木業	2 (40.0)		2 (40.0)	1 (20.0)	5 (〃)
學生	2 (22.0)			7 (77.8)	9 (〃)
서비스業	5 (38.5)	1 (7.7)	3 (23.0)	4 (30.8)	13 (〃)
計	153 (28.1)	60 (11.0)	124 (22.8)	207 (38.1)	544 (100)

% 11.0%로서 前者에 더 關心이 있다는 傾向을 알 수 있고 「둘다 關心이 크다」는 比率은 22.8%로 적지 않은 部分을 찾이하여 穩當한 態度라고 생각되나 兩者를 比較하는데는 큰 意味가 없다고 보겠다. 要컨데 中央選舉나 地方選舉를 따지기에 앞서 自己意思의 表現인 選舉에 對한 關心度가 낮은 가운데 地方選舉보다는 中央選舉에 더 關心을 보인다는 말이 되겠다.

이것을 地域別로 分析해보면 都市化된 地域일수록 選舉에 對한 無關心度가 더甚해지면서 大都市地域인 서울의 白鹿洞에서는 그 比率이 85.7%에 達하여 놀라운 現象을 빚어내고 있으며 農村으로 갈수록 無關心度가若干 낮아지면서 中央選舉에 對한 關心度가 높아지는 傾向을 보이고 있어 大都市의 境遇와 注目할만한 對照를 이루고 있다. 教育程度別로는 無學의 無關心度가 52.4%로 極甚한 것을 除하고는 別다른 特徵의 傾向이 없으며 男女性別로는 女子의 無關心率이 50%로서 男子보다 女子의 無關心度가 甚함을 나타내고 있다. 또 出身地別로 보아서는 北韓에서 南下한 住民의 無關心率이 53.6%로 가장 높고 生活程度別로 보면 上流와 下流層의 無關心度가 높고 中流에서는 中央選舉에 가장 높은 關心度를 보이고 있다. 職業別로는 學生의 無關心度가 77.8%로 至極히 높고 中央選舉에 對한 關心은 公務員이 가장 많다.

以上의 調査結果를 綜合하여 볼때 選舉에 對한 無關心 傾向이 支配的이며 特히 大都市인 서울의 境遇와 學生의 無關心度는 거의 諦念에 가까울 程度이다.

그런 條件下에서도 地方選舉보다는 中央選舉 다시 말하면 自治政治보다는 國政에 對한 政治的 關心이 強하게 나타나는 것은 國政 即 中央選舉에 있어서 내세우는 政治的인 問題와 「슬로간」은 比較的 明瞭하여 大衆이 여기에 對한 贊否의 表示를 하기가 쉬운 때문이라고 생각되며 또 都市化의 程度에 따라 다시 말하면 自治의 基盤인 地域社會的 構造가 흩어져 갈수록 이러한 傾向은 더 強해지기 마련인 것이다. 그러나 自治政은 國政보다도 住民의 實際生活에 直接 커다란 影響을 및이고 손이 면 國政과는 달리 住民의 生活領域에 接近하여 거기에 參與하거나 干涉하기 쉽다는 點에서 當然히 國政의 問題보다는 自治政에 關心이 높아야 옳은 姿勢일터인데 中央選舉에 比하여 地方選舉에 對한 關心이 적다는 것은 住民의 自治意識이 稀薄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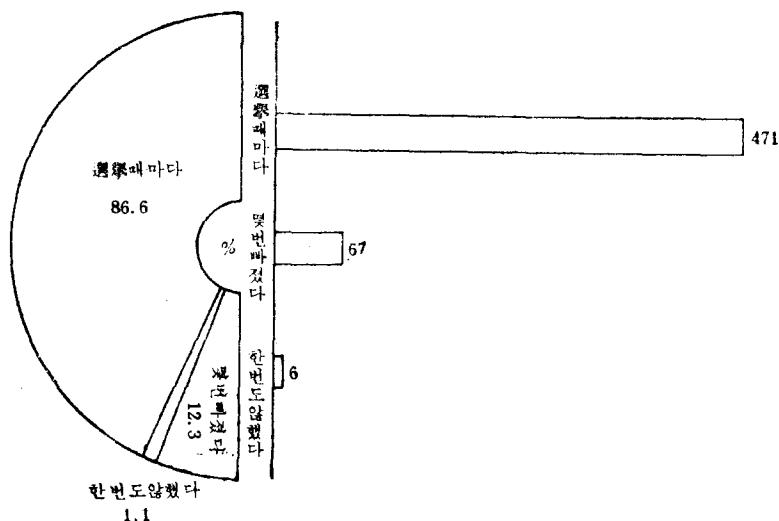
四. 地方選舉의 投票率

一般的으로 選舉의 投票率은 政治意識의 尺度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先進歐美諸國에서는 當然한 말이 되겠지만 果然 우리나라의 境遇에도 이 말과 같이 投票率의 높이가 곧 政治意識의 高低를 表示하는지는 檢討해 볼 問題이다.

地方選舉의 投票率問題도 住民의 自治意識의 實態와 密接히 連關係는 것임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相關關係를 이루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먼저 過去로 부터 지금까지 屢次 實施된 選舉에서 몇번이나 投票에 參加 하였는가 를 묻는 設問에 對한 應答比率을 살펴 보겠다.

圖表 5-1 投票을 몇번 했는가?



위의 그라프에 나타난바와 같이 全體的으로 보아 「選舉 때마다 投票에 參加했다」는 사람 이 86.6%로서 「몇 번 빠졌다」는 12.3%에 比하여 高率을 보여주고 있다.

圖表 5-2

投票를 몇 번 했는가?

地域別	選舉 때마다	몇 번 빠졌다	한번도 않았다	計
陝 川	62 (95.4)	3 (4.6)		65 (100)
槐 山	55 (95.5)	2 (3.5)		57 (〃)
社 龜	41 (62.0)	26 (36.6)	1 (1.4)	71 (〃)
平 澤	66 (90.4)	7 (9.6)		73 (〃)
白 鹿	58 (92.1)	5 (7.9)		63 (〃)
金 北	55 (84.6)	10 (15.4)		65 (〃)
後 朱	74 (96.1)	2 (2.6)	1 (1.3)	77 (〃)
西 炭	57 (98.1)	12 (16.4)	4 (5.5)	73 (〃)
計	471 (86.6)	67 (12.3)	6 (1.1)	544 (100)

5-3

教育程度別	매 번	몇 번 빠졌다	한번도 않았다	計
無 學	88 (85.4)	15 (14.6)		103 (100)
한글解得	73 (90.1)	8 (9.9)		81 (〃)
書 堂	12 (92.3)	1 (7.7)		13 (〃)
國 卒	150 (85.2)	23 (13.1)	3 (1.7)	176 (〃)
中 卒	34 (72.3)	11 (23.4)	2 (4.3)	47 (〃)
高 卒	70 (94.5)	3 (4.1)	1 (1.4)	74 (〃)
大 卒	40 (88.0)	6 (12.0)		46 (〃)
大卒以上	3 (75.0)	1 (25.0)		4 (〃)
計	471 (86.6)	67 (12.3)	6 (1.1)	544 (100)

5-4

年齢別	매 번	몇 번 빠졌다	한번도 않았다	計
20~29	105 (79.5)	22 (16.7)	5 (3.8)	132 (100)
30~39	149 (92.5)	11 (6.8)	1 (0.7)	161 (〃)
40~49	91 (88.3)	12 (11.7)		103 (〃)
50~59	70 (86.4)	11 (13.6)		81 (〃)
60~69	39 (81.2)	9 (18.8)		48 (〃)
70~79	15 (93.7)	1 (6.3)		16 (〃)
80以上	2 (66.7)	1 (33.3)		3 (〃)
計	471 (86.6)	67 (12.3)	6 (1.1)	544 (100)

5-5

區分 性別	매 번	몇 번 빠졌다	한 번도 않았다	計
男	238 (89.4)	26 (9.8)	2 (0.8)	266 (100)
女	233 (83.8)	41 (14.7)	4 (1.4)	278 ("")
計	471 (86.6)	67 (12.3)	6 (1.1)	544 (100)

5-6

區分 職業別	매 번	몇 번 빠졌다	한 번도 않았다	計
無職	195 (84.4)	32 (13.9)	4 (1.7)	231 (100)
農業業員	143 (91.1)	12 (7.6)	2 (1.3)	157 ("")
商業業員	48 (87.3)	7 (12.7)		55 ("")
公務員	22 (88.0)	3 (12.0)		25 ("")
會社員	12 (100.0)			12 ("")
勞動者	26 (70.3)	11 (29.7)		37 ("")
土木業學生	5 (100.0)			5 ("")
學生活	9 (100.0)			9 ("")
서비스業	11 (84.6)	2 (15.4)		13 ("")
計	471 (86.6)	67 (12.3)	6 (1.1)	54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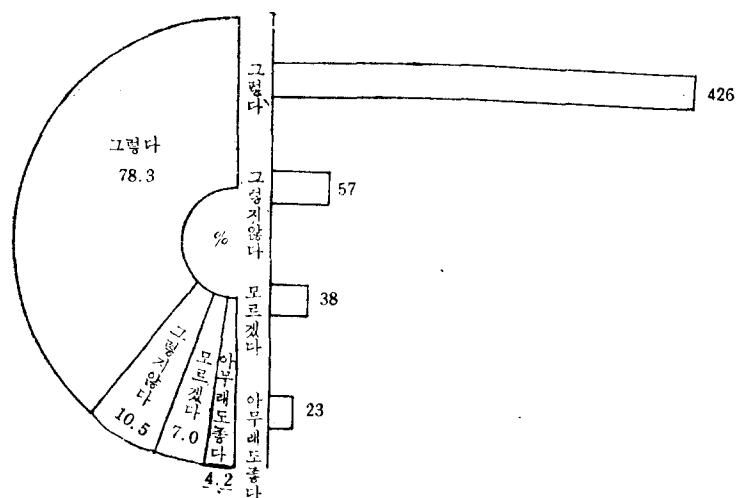
5-7

區分 生活程度別	매 번	몇 번 빠졌다	한 번도 않았다	計
上	20 (95.2)	1 (4.8)		21 (100)
中	161 (87.9)	20 (11.0)	2 (1.1)	183 ("")
下	209 (85.3)	46 (13.5)	4 (1.2)	340 ("")
計	471 (86.6)	67 (12.3)	6 (1.1)	544 (100)

이제 地域別로 이것을 보면 都市보다도 農村에서 더 높은 投票率을 나타내고 있으며 教育程度가 낮을수록 投票率이 높아지고 있다. 年齡의으로는 20代의 젊은 層에서 投票率이 낮은데 選擇權을 얻은지가 얼마 안되어 投票할 機會를 미처 갖지 못한 태도 原因이 있을것 같다. 또 男女性別로는 男子의 投票率이 女子보다 높고 職業別로는 農業會社員 學生이 각각 91.1%, 100%, 100%로 가장 投票率이 높으며 生活程度에 正比例하여 投票率이 上昇하고 있다.

여기서 다시 設問을 바꾸어 「投票는 누구나 해야 하는가」 다시 말해서 投票는 「반듯이」해야 하는가에 對한 反應을 보면 다음의 그라프에 나타난바와 같이 「그렇다」고 肯定한 사람의 比率이 78.3%로서 大部分을 차지하고 「그렇지 않다」고 否定한 比率 10.5% 와 「아무래도 좋다」「모르겠다」의 11.2%를 합하여 21.7%에 不過하지만 앞서 나타난 高率의 投票率 86.6%와 「반듯이 해야 한다」는 確實한 投票意識을 나타낸 78.2%와의 差異에 注目할 必要가 있을 것 같다.

圖表 6-1 投票는 누구나 다 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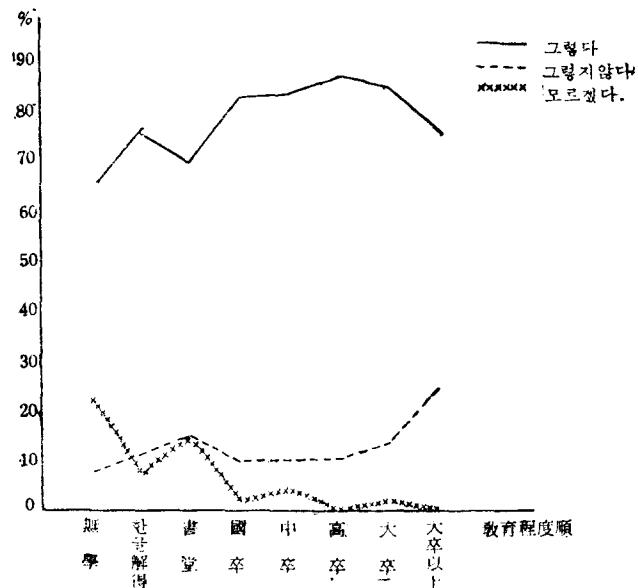
6-2

地域別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計
陝川	46 (70.8)	9 (13.8)	1 (1.5)	9 (13.8)	65 (100)
槐山	46 (80.7)	7 (12.3)	1 (1.8)	3 (5.3)	57 (〃)
社龜	54 (76.1)	8 (11.3)	2 (2.8)	7 (9.9)	71 (〃)
平澤	60 (82.2)	7 (9.6)	1 (1.4)	5 (6.8)	73 (〃)
白鹿	57 (90.5)	2 (3.2)	1 (1.6)	3 (4.8)	63 (〃)
金北	39 (60.0)	13 (20.0)	9 (13.9)	4 (6.2)	65 (〃)
茂朱	65 (84.4)	2 (2.6)	7 (9.1)	3 (3.9)	77 (〃)
西炭	59 (80.8)	9 (12.3)	1 (1.4)	4 (5.5)	73 (〃)
計	426 (78.3)	57 (10.5)	23 (4.2)	38 (7.0)	544 (100)

6-3

教育程度別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計
無學	66 (64.1)	8 (7.8)	6 (5.8)	23 (22.3)	103 (100)
한글解得	61 (75.3)	9 (11.1)	5 (6.2)	6 (7.4)	81 (〃)
書堂	9 (69.2)	2 (15.4)		2 (15.4)	13 (〃)
國卒	145 (82.4)	18 (10.2)	9 (5.1)	4 (2.3)	176 (〃)
中卒	39 (83.0)	5 (10.6)	1 (2.2)	2 (4.2)	47 (〃)
高卒	64 (86.5)	8 (10.8)	2 (2.7)		74 (〃)
大卒	39 (84.0)	7 (14.0)		1 (2.0)	47 (〃)
大卒以上	3 (75.0)	1 (25.0)			4 (〃)
計	426 (78.3)	57 (10.5)	23 (4.2)	38 (7.0)	544 (100)

6-4



6-9

年齢別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計
20~29	106 (80.3)	13 (9.8)	5 (3.8)	8 (6.1)	131 (100)
30~39	135 (83.9)	16 (9.9)	10 (6.2)	—	161 ("")
40~49	81 (78.6)	12 (11.7)	3 (2.9)	7 (6.8)	103 ("")
50~59	56 (69.1)	12 (14.8)	4 (4.9)	9 (11.2)	81 ("")
60~69	33 (68.7)	3 (6.3)	1 (2.1)	11 (22.9)	48 ("")
70~79	13 (81.2)	1 (6.3)	—	2 (12.5)	16 ("")
80以上	2 (66.7)	—	—	1 (33.3)	3 ("")
計	426 (78.3)	57 (10.5)	23 (4.2)	38 (7.0)	544 (100)

6-6

性別	區分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計
男		218 (82.0)	30 (11.3)	7 (2.6)	11 (4.1)	266 (100)
女		208 (74.8)	27 (9.7)	16 (5.8)	27 (9.7)	278 ("")
	計	426 (78.3)	57 (10.5)	23 (4.2)	38 (7.0)	544 (100)

이것을 區域別로 보면 投票率의 境遇는 反對로 投票參與의 必要性에 對한 意識이 農村에서 보다 都市에서 높아지는 傾向이 보이며 마찬가지로 教育程度에 正比例해서 그 比率이 上昇되고 있다. 年齡別로는 投票意識이 年齡順으로 減小하고 男子는 女子보다 投票意識이

6-7

職業別	區分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計
無職	177 (76.6)	17 (7.4)	17 (7.4)	20 (8.7)	231 (100)	
農業	125 (79.6)	22 (14.0)		10 (6.4)	151 (〃)	
商業	46 (83.6)	4 (7.3)	1 (1.8)	4 (7.3)	55 (〃)	
公務員	21 (84.0)	3 (12.0)	1 (4.0)		25 (〃)	
會社員	9 (75.0)	3 (25.0)			12 (〃)	
勞動者	22 (59.0)	7 (18.9)	4 (10.8)	4 (10.8)	37 (〃)	
上木業	4 (80.0)	1 (20.0)			5 (〃)	
學生	9 (100.0)				9 (〃)	
Service	13 (100.0)				13 (〃)	
計	426 (78.3)	57 (10.5)	23 (4.2)	38 (7.0)	544 (100)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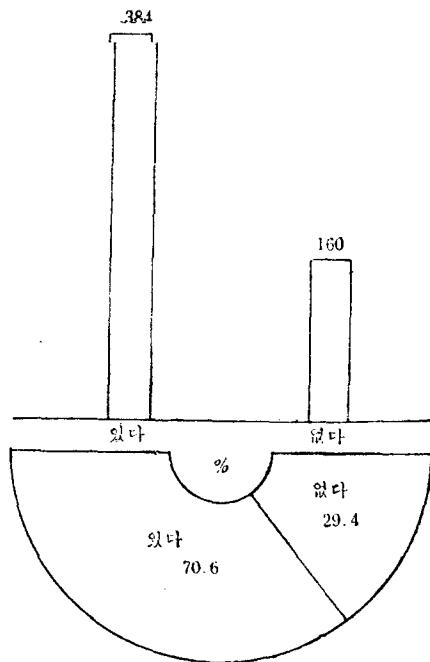
生活程度別	區分	그렇다	그렇지 않다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計
上	15 (71.4)	4 (19.0)	2 (9.6)			21 (100)
中	155 (84.7)	21 (11.5)	1 (0.5)	6 (3.3)		183 (〃)
下	256 (75.3)	32 (9.4)	20 (5.9)	32 (9.4)		340 (〃)
計	426 (78.3)	57 (10.5)	23 (4.2)	38 (7.0)		544 (100)

強하며 82%의 比率을 나타내고 있으며 職業別로는 學生 公務員이 強하고 勞動者가 가장 弱하여 59.5%이다. 生活程度別로는 中流가 가장 投票意識이 強하다.

以上의 調査結果를 綜合하여 볼 때 높은 投票率과 確實한 投票意識間에는相當한 差異가 있어서 投票參加의 必要性을 否認하거나 意識하지 못하는 比率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아 높은 投票率이 높은 政治意識으로 만 이루어진 結果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오히려 그 違이라고 보아야 옳을 것 같다. 또 都市의 投票率이 農村보다 낮고 教育程度가 높을수록 投票率이 낮았는데 投票의 必要性에 對한 意識面에서는 그 反對의 現象이 나타났다는 事實은 意識을 行動에 까지 擴張하는 것은 別個의 問題로서 우리나라에서는 意識과 行動이 背反하여 나타나는 例가 許多함을 暗示해 주고 있다.

以上의 調査結果는 中央選舉와 地方選舉를 區分하지 않은 選舉一般의 綜合投票率과 一般投票意識이 있으나 이것을 地方選舉와 比較하여 봄으로서 기기에 어여한 特徵과 差異가 있는지의 與否를 묻는 設問에 對한 應答을 集計한바 다음과 같은 結果가 나타났는데 여기서 먼저 이 結果는 地方選舉의 投票率自體를 表現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한번이라도 過去에 實施된 地方選舉에서 投票해본 經驗이 있는 사람의 比率을 나타내는 것임으로 有權者이더라도 選舉權이 發生한지가 얼마 안됨으로 投票할 機會를 미쳐 갖지 못한 젊은 層이 있을 可能性과 投票때마다 빠지지 않고 했다는 境遇보다는 投票經驗率이 더 낮은 投票率을 含有할 것

圖表 7-1 地方選舉를 해본 경험이 있는가?



이라는 점을 함께考慮해야 할 것이다.

위의 그라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經驗이 있다」는 比率이 70.6%로一看 이것이 高率의 投票率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나 이 經驗率에 含有된 正確한 投票率 自體는 이 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點은 앞서 指摘한바인데 그 點을 念頭에 두고 앞에 提示한바 있는 一般投票率 86.6% 와 比較해 보면 地方選舉의 投票率이 一般投票率 대지 中央選舉投票率보다 훨씬 낮다는 結論을 내릴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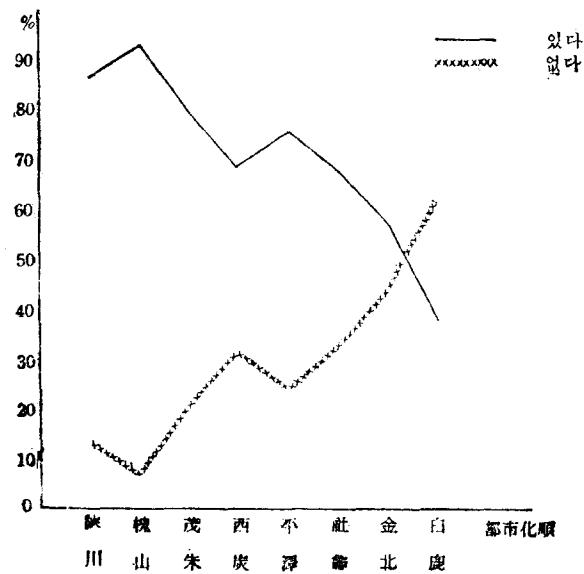
7-2

地域別	區分			計
	有	無	計	
陝川	56 (86.2)	9 (13.8)	65 (100)	
槐山	53 (93.0)	4 (7.0)	57 (〃)	
社龜	48 (67.6)	23 (32.4)	71 (〃)	
平澤	55 (75.3)	18 (24.7)	73 (〃)	
白鹿	24 (38.1)	39 (61.9)	63 (〃)	
金北	37 (56.9)	28 (43.1)	65 (〃)	
茂朱	61 (79.2)	17 (20.8)	77 (〃)	
西炭	50 (68.5)	23 (31.5)	73 (〃)	
計	384 (70.6)	160 (29.4)	54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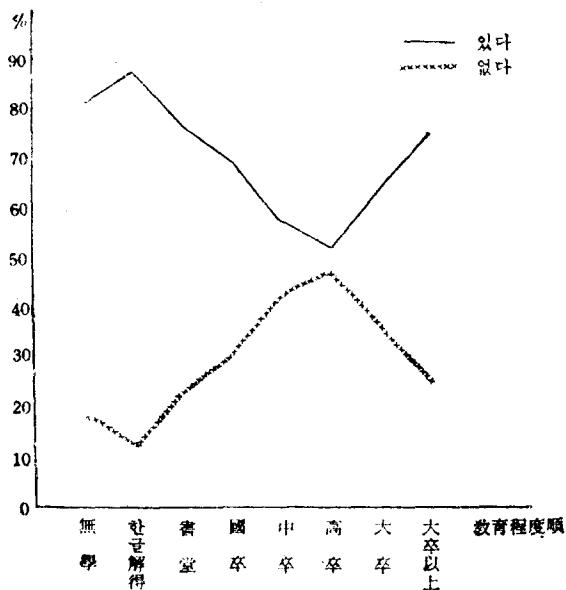
7-4

教育程度	區分			計
	有	無	計	
無學	84 (81.6)	19 (18.4)	103 (100)	
한글解得	71 (87.7)	10 (12.3)	81 (〃)	
書堂	10 (76.9)	3 (23.1)	13 (〃)	
國卒	121 (69.3)	55 (30.7)	176 (〃)	
中卒	27 (57.4)	20 (42.6)	47 (〃)	
高卒	39 (52.5)	35 (47.5)	74 (〃)	
大卒	29 (64.0)	17 (36.0)	50 (〃)	
大卒以上	3 (75.0)	1 (25.0)	4 (〃)	
計	384 (70.6)	160 (29.4)	544 (100)	

7-3



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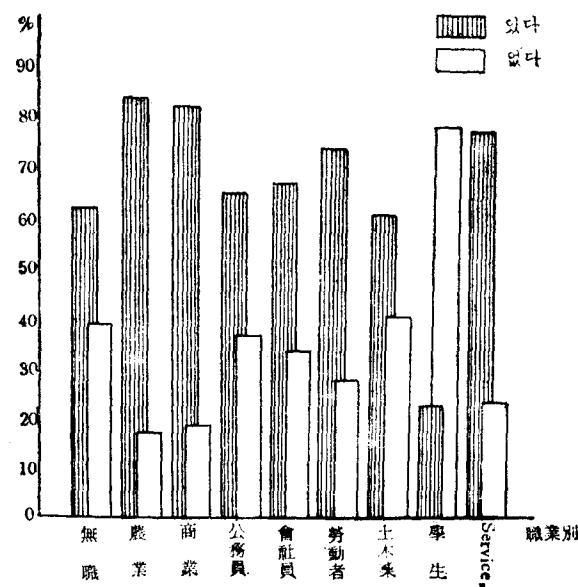


7-6

性別	區分			計
	有	無	計	
男	211 (79.3)	55 (20.7)	266 (100)	
女	173 (62.2)	105 (37.8)	278 (〃)	
計	384 (70.6)	160 (29.4)	544 (100)	

7-7

年齢別	區分			計
	有	無	計	
20~29	47 (35.6)	85 (64.4)	132 (100)	
30~39	128 (79.5)	33 (20.5)	161 (〃)	
40~49	87 (84.5)	16 (15.5)	103 (〃)	
50~59	70 (86.4)	11 (13.6)	81 (〃)	
60~69	37 (77.1)	11 (22.9)	48 (〃)	
70~79	13 (81.2)	3 (18.8)	16 (〃)	
80以上	2 (66.7)	1 (33.3)	3 (〃)	
計	384 (70.6)	160 (29.4)	54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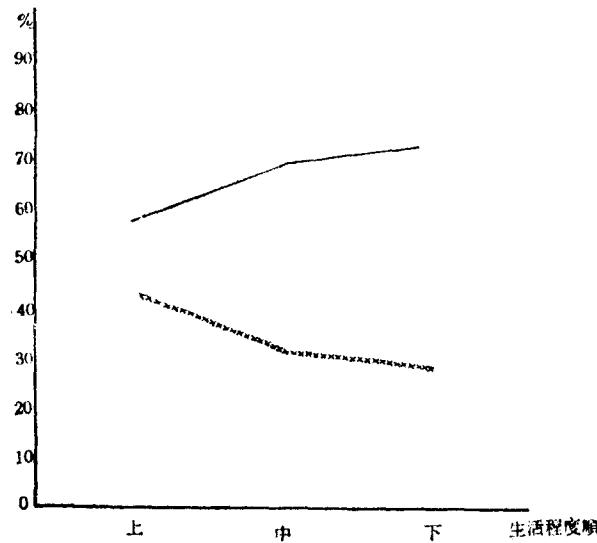
7-8

職業別	區分			計
	有	無	計	
無職	142 (61.5)	89 (38.5)	231 (100)	
農業	131 (83.4)	26 (16.6)	157 (〃)	
商業	45 (81.8)	10 (18.2)	55 (〃)	
公務員	16 (64.0)	9 (36.0)	25 (〃)	
會社員	8 (66.7)	4 (33.3)	12 (〃)	
勞動者	27 (73.0)	10 (27.0)	37 (〃)	
土木業	3 (60.0)	2 (40.0)	5 (〃)	
學生	2 (22.2)	7 (77.8)	9 (〃)	
その他	10 (76.9)	3 (23.1)	13 (〃)	
計	384 (70.6)	160 (29.4)	544 (100)	

7-10

出身地別	區分			計
	有	無	計	
本邦	219 (74.7)	74 (25.3)	293 (100)	
本道他郡	85 (68.5)	39 (31.5)	124 (〃)	
他道	65 (64.6)	34 (35.4)	96 (〃)	
以外	16 (57.1)	12 (42.9)	28 (〃)	
其他	2 (66.7)	1 (33.3)	3 (〃)	
計	384 (70.6)	160 (29.4)	544 (100)	

7-11



7-11

生活程度	區 分		計
	有	無	
上	12 (57.1)	9 (42.9)	21 (100)
中	126 (68.9)	57 (31.1)	183 (")
下	246 (72.4)	94 (27.6)	340 ("")
計	384 (70.6)	160 (29.4)	544 (100)

이제 이것을 地域別로 보면 都市보다 農村의 經驗率이 높아서 都市化의 程度에 逆比例하는 傾向을 보이는데 特히 大都市 中心地인 서울의 白鹿洞에서의 經驗率은 不過 38.1%로서 地方選舉投票率이 가장 낮음을傍證해 주고 있다.

한편 教育程度가 낮을수록 高率의 經驗을 보여 一般投票率의 傾向과一致하고 있으며 男女別로는 男子의 經驗率이 女子보다 훨씬 높다. 職業別로는 農業의 經驗率이 83.4%로서 가장 높고 學生이 가장 낮은데 이 學生의境遇는 投票할 機會를 미처 갖지 못한 新人有權者가 많은데 起因하는 것으로 보인다. 住民의 出身地別로 보면 본고장 사람의 經驗率이 높고 出身地가 그 地方에서 멀어 갈수록 經驗率은 낮아져서 以北出身의 住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보아 본고장 出身이 他고장 出身보다 地方選舉에 더 關心을 갖는다는 當然한 傾向을 엿볼수 있다. 끝으로 生活程度別로는 上流의 經驗率이 낮고 下流로 갈수록 높아지는 傾向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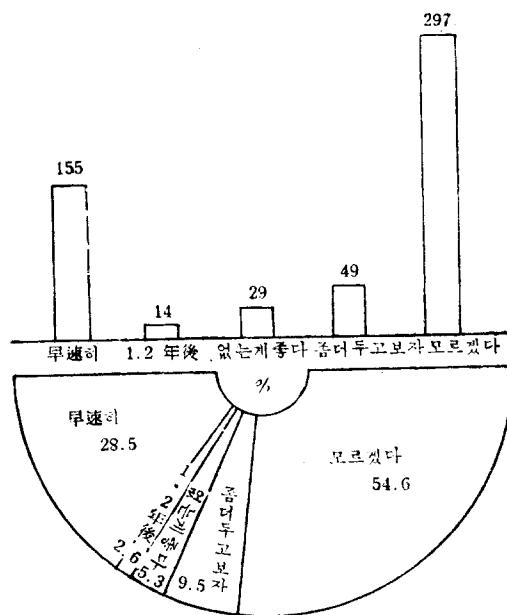
以上의 調査結果가 나타내는 主要한 傾向을 要約하면 地方選舉의 投票經驗率 또는 投票率自體가 都市보다 農村에서 有識層보다 無識層에서 女子보다 男子에서 타고장 出身보다 본고장 出身住民이 더 높다는 말이 된다. 그리고 地方選舉보다 中央選舉의 投票率이 높은 것은 歐美先進諸國에서 보는 傾向과 같으나 다만 投票率이 中央選舉 地方選舉할 것 없이 先進國의

境遇보다 훨씬 높은 點이 다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投票率이 높다는 事實은 政治意識 또는 自治意識이 높음을 그대로 나타낸다고는 할 수 없으며 實相은 오히려 그것이 낮음을 나타낸다고 보아도 좋을 狀態이다. 서울에서 投票率이 낮고 農村에서 높은 傾向은 이것을 이러한 事情을 잘 말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投票의 問題로서 미루어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 政治意識을 높이는 일이 切實함을 痛感케 하고 있으며 從來와 같이 投票率自體만을 높이는 데 置重하면 그 結果는 도리히 나쁜 方向으로 이끌어 가기 마련이라는 點을 指道하지 않을 수 없다. 選舉때마다 의례히 政府當局이나 言論機關에서 標語를 내세우는 等의 投票率높이기 運動은 直接選舉自體를 좋게 하기는 키녕 一般的으로 어느一方의 得票率을 높이는 結果밖에 안되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에서 中央選舉보다 地方選舉의 投票率이 낮은 것은 中央總選舉를 重視하는 反面 地方選舉를 그 付錄쯤으로 輕視해 버리는 傾向때문이며 그 큰 원인은 真正한 住民自治에 依한 地方自治가 없이 地方政府는 中央政府의 下部機構의 存在意義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테서 代表者를 누구로 選定하는 가가 큰 意味를 갖지 못한 까닭이라고 생각된다.

五. 地方住民의 議會觀

地方自治의 根本土臺가 되고 出發點이 되는 것은 住民意思의 基本的 表現이라고 볼 수 있

圖表 8-1 郡議會는 언제 構成되어야 하는가?



는 地方選舉에 依한 地方議會의 構成일 것이다. 地方議會를 通하여 住民의 意思가 充分히 反映되지 않으면 地方自治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住民의 政治參與方法으로는 直接民主制와 間接民主制의 두가지가 있는데 住民總參加에 依한 住民自治를 생각할 때는 各人이 直接 政治에 參加하는 直接民主制가 더 좋다는 것은 當然하다 하겠으나 現代와 같이 人口가 增大하고 社會가 複雜화해지면 直接民主制가 不可能하게 되어 間接民主制로서의 代議制에 依할 수 밖에 없게 되었고 地方議會는 地方獨自의 問題를 中心으로 「住民의, 住民에 依한, 住民을 위한」 地方政治를 可能케 하는 方法으로서 重要한 意義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地方議會에 對해서 어떠한 見解와 態度 價値觀을 가지고 있는지 調査한 結果를 分析해 보겠다.

먼저 「市郡議會를 早速히 構成해야 하는가」 即 市郡議會構成의 必要性과 時期를 묻는 設問에 對한 應答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의 그라프에 나타난 바와 같이 全體的으로 보아 「모르겠다」는 比率이 54.6%나 되어 이 問題에 對한 無識과 無關心의 程度가 놀라울 만큼 크며 「早速히 構成할 必要性이 있다」는 比率은 不過 28.5%이고 「1.2年 후에」를 合하여도 構成의 必要性을 認定하는 사람의 比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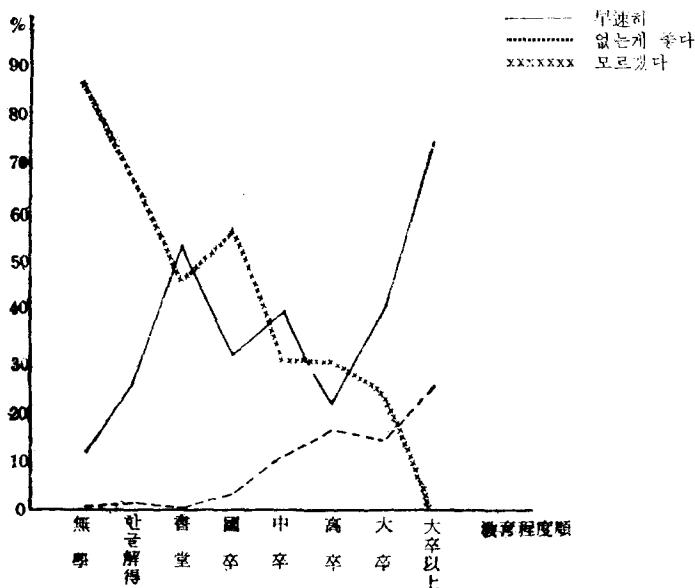
8-2

地域別	區分	早速히	1.2年後	없는게좋다	좀더두고보자	모르겠다	計
陝	川	15 (23.1)	1 (1.5)	5 (4.6)	11 (16.9)	37 (56.9)	65 (100)
槐	山	16 (28.1)	1 (1.8)	2 (3.5)	7 (18.3)	31 (54.4)	57 (〃)
社	龜	21 (20.6)	3 (4.2)	12 (16.9)	7 (9.9)	28 (39.4)	71 (〃)
平	澤	21 (28.8)	1 (1.4)	5 (6.8)	4 (5.5)	42 (57.5)	73 (〃)
白	鹿	7 (11.1)	1 (1.6)	3 (4.8)	5 (7.9)	47 (74.6)	63 (〃)
金	北	20 (30.8)	7 (10.8)	1 (1.5)	6 (9.2)	31 (47.7)	65 (〃)
茂	朱	35 (45.5)		3 (3.9)	5 (6.5)	34 (44.2)	77 (〃)
西	炭	20 (27.4)	1 (1.4)	1 (1.4)	4 (5.5)	47 (64.4)	73 (〃)
	計	155 (28.5)	14 (2.6)	29 (5.3)	49 (9.0)	297 (54.6)	544 (100)

8-3

教育程度	區分	早速히	1.2年後	없는게좋다	좀더두고보자	모르겠다	計
無	學	11 (10.7)			3 (2.9)	89 (86.4)	103 (100)
専	解	21 (25.9)		1 (1.2)	5 (6.2)	54 (66.7)	81 (〃)
書	堂	7 (53.8)				6 (46.2)	13 (〃)
國	卒	56 (31.8)	2 (1.2)	6 (3.4)	12 (6.8)	100 (56.8)	176 (〃)
中	卒	19 (40.3)	4 (8.5)	5 (10.6)	5 (10.6)	14 (30.0)	47 (〃)
高	卒	16 (21.6)	5 (6.8)	12 (16.2)	19 (25.7)	22 (29.7)	74 (〃)
大	卒	22 (44.0)	3 (6.0)	5 (14.0)	4 (8.0)	12 (24.0)	50 (〃)
大	卒以上	3 (75.0)		1 (25.0)			4 (〃)
	計	155 (28.5)	14 (2.6)	29 (5.3)	49 (9.0)	297 (54.6)	544 (100)

8-4



은 31.1%에 지나지 않는다. 「좀 더 두고 봐야 겠다」고 態度決定을 保留한 比率은 9.0%인 데 이것은 實質的으로 「모르겠다」는 態度에 가깝다고 생각되며 「없는게 좋다」고 必要性을 否認한 比率은 5.3%이다.

8-5

性別／區分	早速히	1.2年後	없는게 좋다	좀더두고보자	모르겠다	計
男	112 (42.1)	11 (4.1)	21 (7.9)	34 (12.8)	88 (33.1)	266 (100)
女	43 (15.5)	3 (1.1)	8 (2.9)	15 (5.4)	209 (75.1)	278 (〃)
計	155 (28.5)	14 (2.6)	29 (5.3)	49 (9.0)	297 (54.6)	544 (100)

8-6

年齢別／區分	早速히	1.2年後	없는게 좋다	좀더두고보자	모르겠다	計
20~29	37 (20.8)	7 (5.3)	5 (3.8)	19 (14.4)	64 (48.5)	132 (100)
30~39	58 (36.0)	4 (2.5)	13 (8.1)	14 (8.7)	72 (44.7)	161 (〃)
40~49	29 (28.2)	2 (1.9)	5 (4.9)	8 (7.8)	59 (57.3)	103 (〃)
50~59	22 (27.2)	1 (1.2)	2 (2.5)	4 (7.9)	52 (64.2)	81 (〃)
60~69	9 (18.8)		3 (6.3)	3 (6.3)	33 (68.8)	48 (〃)
70~79			1 (6.3)	1 (6.3)	14 (87.4)	16 (〃)
80以上					3 (100.0)	3 (〃)
計	155 (28.5)	14 (2.6)	29 (5.3)	49 (9.0)	297 (54.6)	544 (100)

8-7

區分 生活程度	早速히	1.2年後	없는게좋다	더 두고 보자	모르겠다	計
上	2 (9.5)	1 (4.8)	1 (4.8)	5 (23.8)	12 (57.1)	21 (100)
中	58 (31.7)	5 (2.8)	18 (9.8)	20 (10.9)	82 (44.8)	183 (〃)
下	95 (27.9)	8 (2.4)	10 (2.9)	24 (7.1)	203 (59.7)	340 (〃)
計	155 (28.5)	14 (2.6)	29 (5.3)	49 (9.0)	297 (54.6)	544 (100)

8-8

區分 職業別	早速히	1.2年後	없는게좋다	좀더두고보자	모르겠다	計
無職	44 (19.0)	5 (2.2)	9 (3.9)	18 (7.8)	155 (69.1)	231 (100)
農業	59 (37.6)	2 (1.3)	5 (3.2)	12 (7.6)	79 (50.3)	157 (〃)
商業	20 (36.4)	1 (1.8)	4 (7.3)	6 (10.9)	24 (43.6)	55 (〃)
公務員	10 (40.0)	1 (4.0)	8 (32.0)	4 (16.0)	2 (8.0)	25 (〃)
會社員	4 (33.3)	2 (16.7)		3 (25.0)	3 (25.0)	12 (〃)
勞動者	6 (16.2)	1 (2.7)	1 (2.7)	3 (8.1)	26 (70.3)	37 (〃)
土木業	4 (80.0)	1 (20.0)				5 (〃)
學生	3 (33.3)		1 (11.1)	1 (11.1)	4 (44.4)	9 (〃)
其他業	5 (38.5)	1 (7.7)	1 (7.7)	2 (15.4)	4 (30.8)	13 (〃)
計	155 (28.5)	14 (2.6)	29 (5.3)	49 (9.0)	297 (54.6)	54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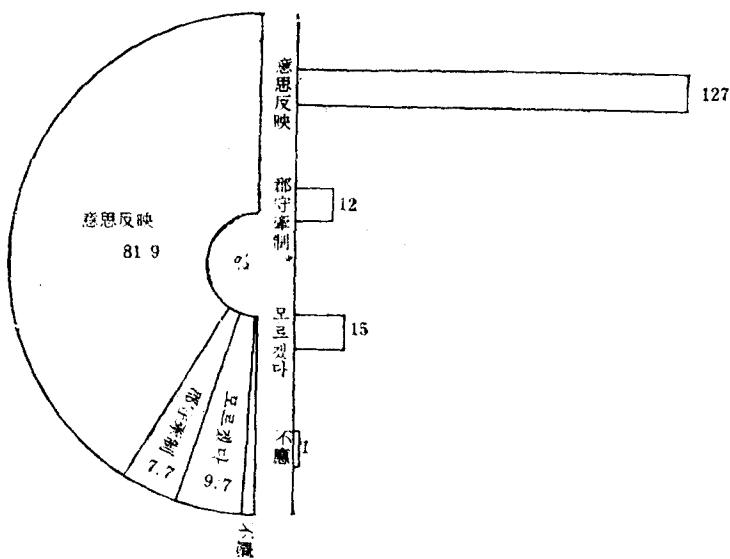
8-9

區分 出身地別	早速히	1.2年後	없는게좋다	더 두고 보자	모르겠다	計
本邦	92 (31.4)	5 (1.7)	14 (4.8)	34 (11.6)	148 (50.5)	293 (100)
本道他郡	26 (20.2)	3 (2.4)	9 (7.3)	8 (6.5)	79 (63.7)	124 (〃)
他道	29 (30.2)	3 (3.1)	4 (4.2)	6 (6.3)	54 (56.3)	96 (〃)
以北	9 (32.1)	2 (7.1)	1 (3.6)	1 (3.6)	15 (53.6)	28 (〃)
其他		1 (33.3)	1 (33.3)		1 (33.3)	3 (〃)
計	155 (28.5)	14 (2.6)	29 (5.3)	49 (9.0)	297 (54.6)	544 (100)

地域別로는 特徵 있는 傾向이 없으나 都市 特히 서울의 白鹿洞에서 必要性을 認定하는 率이 高. 教育程度別로는 「早速히 構成해야 한다」와 「없는게 좋다」의 相反된 兩方에서 教育程度에 正比例하여 그 率이 上昇하고 「모르겠다」는 比率은 逆比例해서 增大하는 傾向을 보이며 男子는 「早速構成」「不要」에서 其히 그 率이 높고 女子는 「모르겠다」는 率이 높다. 年齡의으로는 高齡일수록 「모르겠다는」는 率이 높고 生活程度別로는 中流와 下流層에서 必要性을 認定하는 率이 높다. 職業別로는 公務員의 「必要하다」는 率이 높고 無職과 勞動者の 「모른다」는 率이 높다.

다음은 設問을 바꾸어서 「郡議會가 必要하다면 그 理由가 무엇인가」하는 물음에 對한 反應을 알아보겠다.

圖表 9-1 地方議會가 있어야 할 理由는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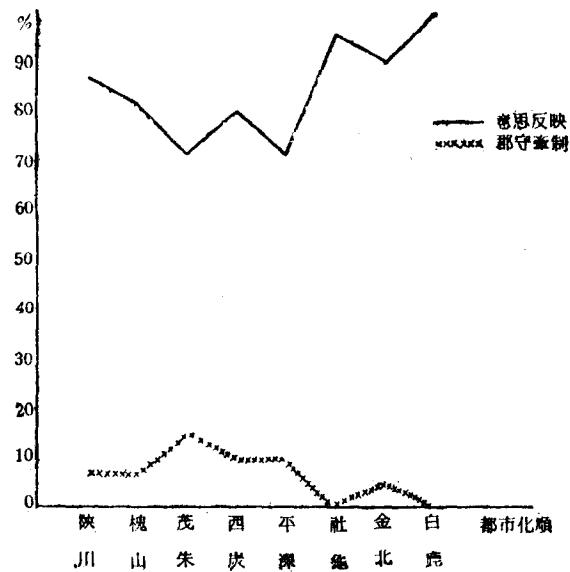
위의 그라프에서 住民의 意思反映을 理由로 한 率이 81.9%로서 大部分을 차지하고 「郡守奉制」와 「모르겠다」는 率은 各各 7.7% 9.7%에 不過하다. 地方行政에 住民의 意思를 反映한다는 것은 自治意識의 積極的인 面으로서 地方議會를 構成하는 本然의 意義도 여기에 있는 것임으로 옳바른 議會觀을 나타내고 있다 하겠으나 이것은 全體調查對象者中 地方議會가 早速히 構成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28.5%의 限定된 集團이 보인 反應임을 留意해야 하겠다.

地城別로 反應을 分析해보면 都市化할 수록 住民의 意思反映을 理由로 하는 率이 더 높아져 가는 反面에 郡守奉制를 理由로 하는 率은 都市化에 逆比例해서 僮地로 갈수록 높아지는 傾向이 보인다. 이러한 傾向은 都市에 比해서 農村이 保守的인一面을 나타낸다고 생각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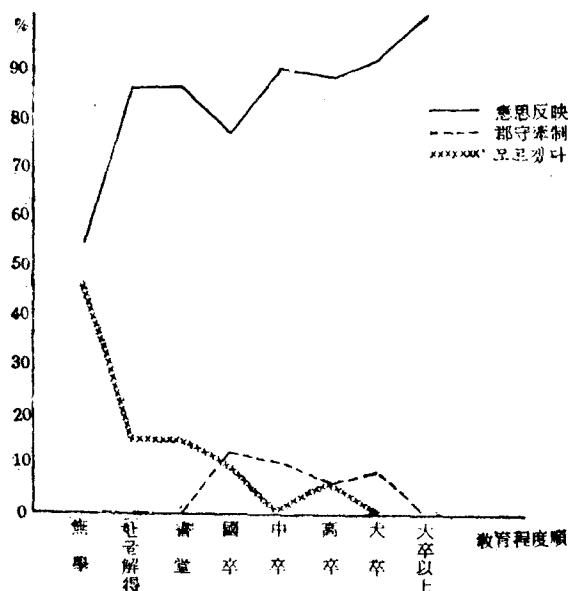
9-2

區分	意思反映	郡守奉制	모르겠다	不應	計
陝川	13 (86.6)	1 (6.7)	1 (6.7)		15 (100)
槐山	13 (81.1)		1 (6.3)	1 (6.3)	16 ("")
社龜	20 (95.2)	1 (6.3)	1 (4.8)		21 ("")
平澤	15 (71.4)	2 (9.6)	4 (19.0)		12 ("")
白鹿	7 (100.0)				7 ("")
金北	18 (90.0)	1 (5.0)	1 (5.0)		20 ("")
茂朱	25 (71.4)	5 (14.3)	5 (14.3)		35 ("")
西炭	16 (8.0)	2 (10.0)	2 (10.0)		20 ("")
計	127 (81.9)	12 (7.7)	15 (9.7)	1 (0.7)	155 (100)

9-3



9-5



9-4

區分 教育程度別	意恩反映	郡守牽制	모르겠다	不應	計
無學	6 (54.5)		5 (45.5)		11 (100)
한글解得書堂	18 (85.7)		3 (14.3)		21 (〃)
國卒	6 (85.7)		1 (14.3)		7 (〃)
中卒	43 (76.8)	7 (12.5)	5 (8.9)	1 (1.8)	56 (〃)
高卒	17 (89.5)	2 (10.5)			19 (〃)
大卒	14 (87.5)	1 (6.3)	1 (6.3)		16 (〃)
大卒以上	21 (91.3)	2 (8.7)			23 (〃)
	2(100.0)				2 (〃)
計	127 (81.9)	12 (7.7)	15 (9.7)	1 (0.7)	155 (100)

9-6

性別 區分	意恩反映	郡守牽制	모르겠다	不應	計
男	96 (85.7)	9 (8.0)	6 (5.4)	1 (0.9)	112 (100)
女	31 (72.1)	3 (7.0)	9 (20.9)		43 (〃)
計	127 (81.9)	12 (7.7)	15 (9.7)	1 (0.7)	155 (100)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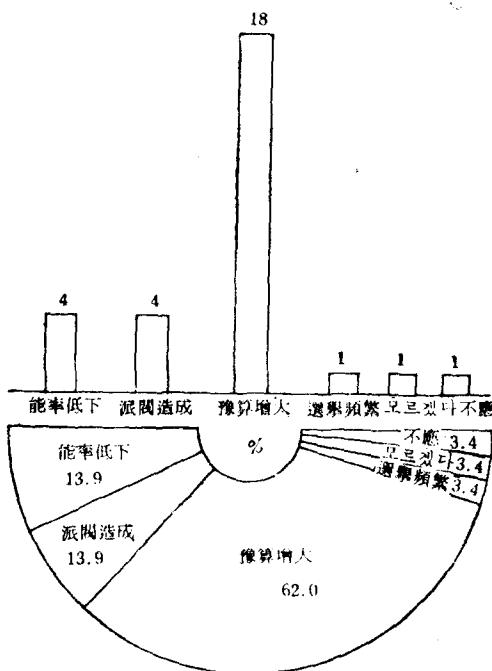
年齢別 區分	意恩反映	郡守牽制	모르겠다	不應	計
20~29	29 (78.4)	5 (13.5)	3 (8.1)		37 (100)
30~39	52 (89.7)	3 (5.2)	3 (5.2)		58 (〃)
40~49	22 (75.9)	2 (6.9)	5 (17.2)		29 (〃)
50~59	16 (72.7)	2 (9.1)	3 (13.6)	1 (4.5)	22 (〃)
60~69	8 (88.9)		1 (11.1)		9 (〃)
70~79					
80 以上					
計	127 (81.9)	12 (7.7)	15 (9.7)	1 (0.7)	155 (100)

9-8

職業別 區分	意恩反映	郡守牽制	모르겠다	不應	計
無職業	34 (81.0)	5 (11.9)	3 (7.1)		42 (100)
農業	46 (78.0)	4 (6.8)	8 (13.6)	1 (1.7)	59 (〃)
商業	16 (80.0)	1 (5.0)	3 (15.0)		20 (〃)
公務員	10 (83.3)	2 (16.7)			12 (〃)
會社員	3 (75.0)		1 (25.0)		4 (〃)
勞動者	6 (100.0)				6 (〃)
上木業	4 (100.0)				4 (〃)
學生	3 (100.0)				3 (〃)
外國人	5 (100.0)				5 (〃)
計	127 (81.9)	12 (7.7)	15 (9.7)	1 (0.7)	155 (100)

生活程度別 區分	意思反映	郡守牽制	모르겠다	不應	計
上	2(100.0)	4 (6.9)	4 (6.9)		2 (100)
中	50 (86.2)	8 (8.4)	11 (11.6)	1 (1.1)	58 (〃)
下	75 (78.9)				95 (〃)
計	127 (81.9)	12 (7.7)	15 (9.7)	1 (0.7)	155 (100)

圖表 10-1 地方議會가 없어야 할 理由는 무엇인가?



王 官權의 象徵인 郡守의 專制를 牽制할 必要性을 農村에서 더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 이것을 教育程度에 비추어 보면 教育程度에 比例해서 意思反映의 應答率은 더 높아지는 반면에 「모르겠다」는 率은 低下되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는데 教育水準이 都市化할 수록 높다는 見地에서 볼 때 前項의 地域別로 나타난 傾向에 一致하고 있음을 當然한 結果라고 보겠다.

男女性別로 보면 「모르겠다」는 率이 女子에게서 男子의 境遇보다 더 높다는 差異밖에 없으며 年齡的으로는 高齡일수록 「모르겠다」는 率이 높아지고 있다. 職業別로는 郡守牽制를 主張하는 率이 公務員에게 가장 높은 點이 注目되며 生活程度別로 보아서는 下流일수록 「郡守牽制」와 「모르겠다」의 應答率이 높아서 都市화와 教育水準에 비추어 본 結果에 一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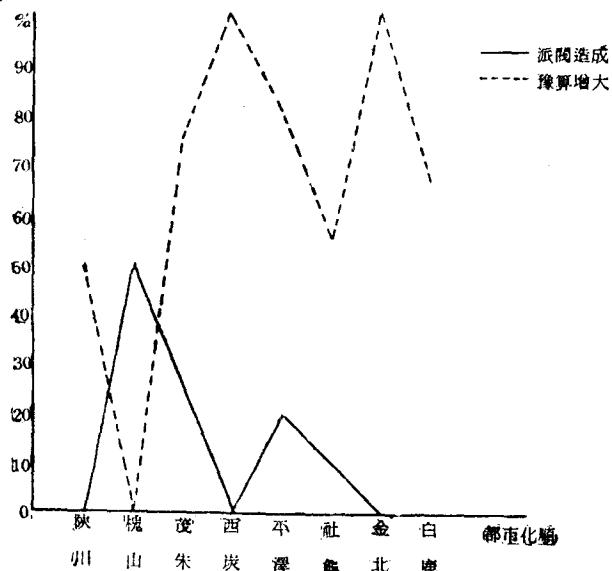
이제 다시 設問을 바꾸어 前項과는 反對로 地方議會가 없는 便이 났다고 생각하는 5.3%의 集團을 對象으로 그 理由가 무엇인가하는 물음에 어떻게 反應이 나타났는가를 보자.

다음 圖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豫算增大를 理由로 하는 率이 62.0%로서 가장 比重이 크며 能率低下와 派閥造成은 각각 13.9%의 同率을 보이고 있다.豫算增大의 理由가 가장 큰比重을 차지하고 있음은 選舉費 人件費等을 비롯한 其他 地方議會構成 維持에 必要한 諸經費가 莫大하여 國民의 負擔을 加重케 하는 것이며 그러한 財政規模에 比하여 地方議會運營의 成果가 적다는 見解로 解釋된다. 따라서 上이 한 見解는 넓은 意味에서 能率低下의 理由와 通하는 것이며 結局 經濟的인 問題가 地方議會의 必要性을 否認하는 主要한 理由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2

區分 地域別	能率低下	派閥造成	豫算增大	選舉頻繁	모르겠다	不應	計
陝 川			1 (50.0)			1 (50.0)	2 (100)
槐 山		1 (50.0)			1 (50.0)		2 ("")
社 鹽	4 (36.4)	1 (9.1)	6 (54.5)				11 ("")
平 澤		1 (20.0)	4 (80.0)				5 ("")
白 鹿			2 (66.7)	1 (33.3)			3 ("")
金 化			1 (100.0)				1 ("")
茂 朱		1 (25.0)	3 (75.0)				4 ("")
西 炭			1 (100.0)				1 ("")
計	4 (13.9)	4 (13.9)	18 (62.0)	1 (3.4)	1 (3.4)	1 (3.4)	29 (100)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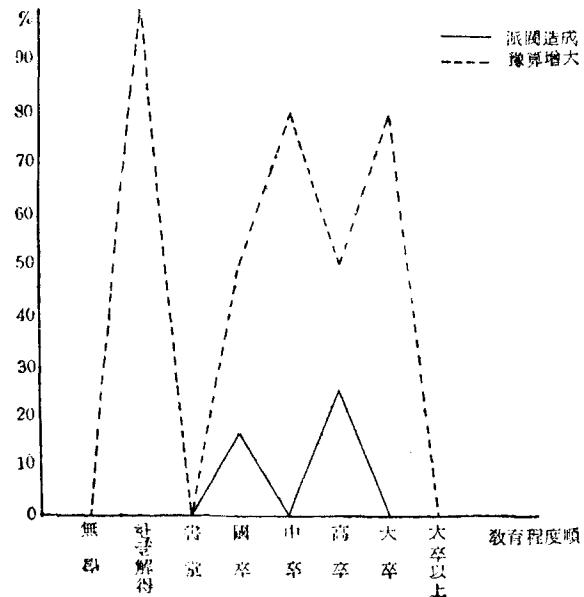
10-4

生活程度別	能率低下	派閥造成	豫算增大	選舉頻繁	互立競合	不 應	計
上			1 (100.0)				1 (100)
中	3 (16.7)	2 (11.1)	10 (55.6)	1 (5.6)	1 (5.6)	1 (5.6)	18 (n)
下	1 (10.0)	2 (20.0)	7 (70.0)				10 (n)
計	4 (13.9)	4 (13.9)	18 (62.0)	1 (3.4)	1 (3.4)	1 (3.4)	29 (100)

10-5

教育程度別	能率低下	派閥造成	豫算增大	選舉頻繁	互立競合	不 應	計
無 學							
한글解得			1 (100.0)				1 (100)
書 當							
國 卒		1 (16.7)	3 (50.0)		1 (16.7)	1 (16.7)	6 (n)
中 卒	1 (20.0)		4 (80.0)				5 (n)
高 卒	3 (25.0)	3 (25.0)	6 (50.0)				12 (n)
大 卒			4 (80.0)	1 (20.0)			5 (n)
大卒以上							
計	4 (13.9)	4 (13.9)	18 (62.0)	1 (3.4)	1 (3.4)	1 (3.4)	29 (100)

10-6



10-7

性別	區分	能率低下	派閥造成	豫算增大	選舉頻繁	모르겠다	不 應	計
男		3 (14.3)	1 (4.8)	15 (71.4)	1 (4.7)	1 (4.7)		21 (100)
女		1 (12.5)	3 (37.5)	3 (37.5)			1 (12.5)	8 ("")
計		4 (13.9)	4 (13.9)	18 (62.0)	1 (3.4)	1 (3.4)	1 (3.4)	29 (100)

10-8

年齢別	區分	能率低下	派閥造成	豫算增大	選舉頻繁	모르겠다	不 應	計
20~29		1 (20.0)	1 (20.0)	2 (40.0)	1 (20.0)			5 (100)
30~39		1 (7.7)	2 (15.4)	8 (61.5)		1 (7.7)	1 (7.7)	13 ("")
40~49		1 (20.0)		4 (80.0)				5 ("")
50~59			1 (50.0)	1 (50.0)				2 ("")
60~69		1 (33.3)		2 (66.7)				3 ("")
70~79				1 (100.0)				1 ("")
80以上								
計		4 (13.9)	4 (13.9)	18 (62.0)	1 (3.4)	1 (3.4)	1 (3.4)	29 (100)

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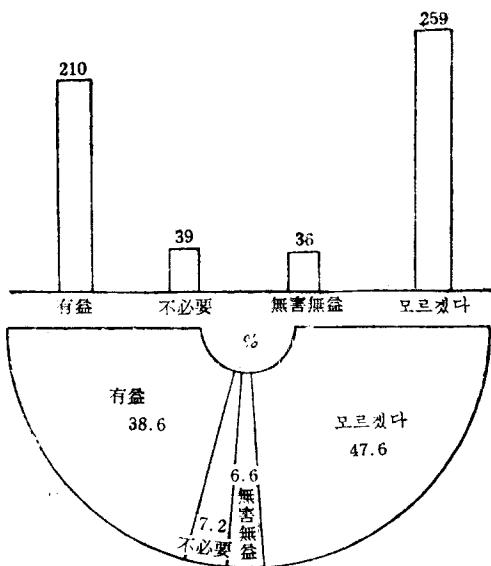
職業別	區分	能率低下	派閥造成	豫算增大	選舉頻繁	모르겠다	不 應	計
無 職			1 (11.1)	7 (77.8)		1 (11.1)		9 (100)
農 業			2 (40.0)	2 (40.0)		1 (20.0)		5 ("")
商 業				4 (100.0)				4 ("")
公 務 員		3 (37.5)		5 (62.5)				8 ("")
會 社 員								
勞 動 者		1 (100.0)						1 ("")
土 木 業								
學 生					1 (100.0)			1 ("")
外 交 事 業			1 (100.0)					1 ("")
計		4 (13.9)	4 (13.9)	18 (62.0)	1 (3.4)	1 (3.4)	1 (3.4)	29 (100)

10-10

生活程度別	區分	能率低下	派閥造成	豫算增大	選舉頻繁	모르겠다	不 應	計
上				1 (100.0)				1 (100)
中		3 (16.7)	2 (11.1)	10 (55.6)	1 (5.6)	1 (5.6)	1 (5.6)	18 ("")
下		1 (10.0)	2 (20.0)	7 (70.0)				10 ("")
計		4 (13.9)	4 (13.9)	18 (62.0)	1 (3.4)	1 (3.4)	1 (3.4)	29 (100)

以上의 調査結果가 나타내는 主要傾向을 要約하면 優先 地方議會를 構成할 必要性을 認識하는 사람의 比率이 80% 程度에 不過하여 우리나라 地方住民의 自治意識이 至極히 낫다는

圖表 11-1 郡(市)議會는 有益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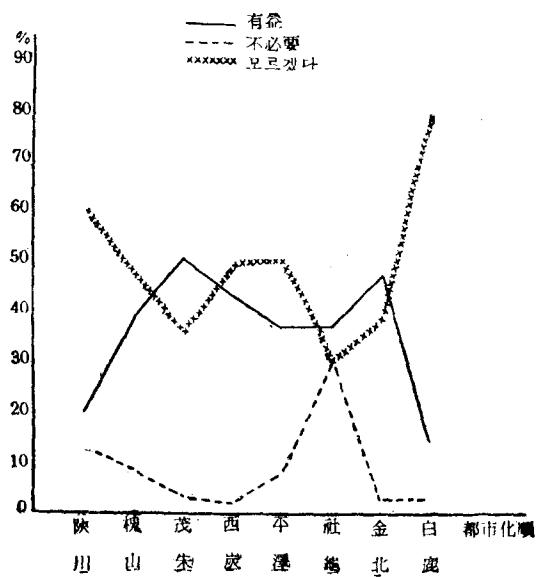
것과 高率의 投票率을 나타내면서도 自己意思의 表現手段인 議會의 構成에 對해서는 無關心과 無識이 支配하고 있다는 點이 될 것이다.

또 비슷한 設問으로 「市郡議會는 有益한가 即 地方議會에 對한 住民의 價值觀을 물어본結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그라프에 나타난바와 같이 「有益하다」고 代議制의 價值를 認定한 사람은 不過 38.6%이며 그밖에는 「無害無益」即 있으나 마나 하다는 消極的 無關心 6.6%와 「問題自體에 對한 無識을 나타내는 「모르겠다」가 47.6% 議會主義를 否認하는 「不必要」 7.2% 等이 차지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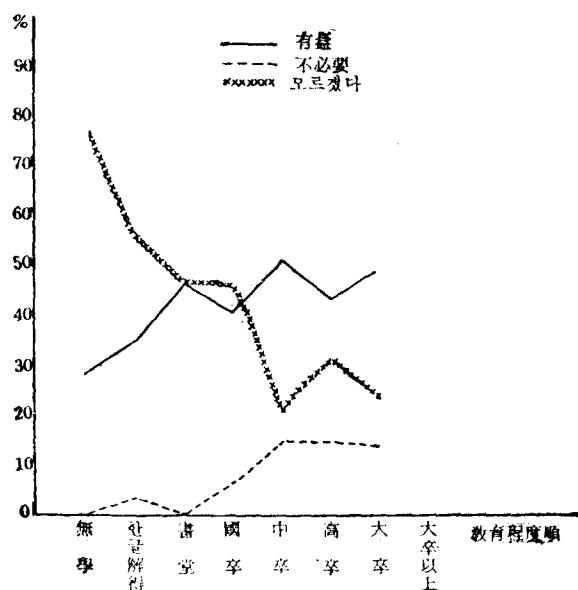
11-2

地域別	區分	有 益	不 必 要	無 害 無 益	모 르 겠 다	計
陝 川		13 (20.1)	9 (13.8)	4 (6.1)	39 (60.0)	65 (100)
槐 山		22 (38.5)	5 (8.8)	3 (5.3)	27 (47.4)	57 (〃)
社 龜		44 (37.1)	15 (31.0)	8 (11.3)	21 (29.6)	71 (〃)
平 澤		27 (37.0)	6 (8.2)	3 (4.1)	37 (50.7)	73 (〃)
白 鹿		9 (14.2)	2 (3.2)	2 (3.2)	50 (79.4)	63 (〃)
金 北		31 (47.6)	2 (3.1)	7 (10.8)	25 (38.5)	65 (〃)
茂 朱		39 (50.6)	3 (3.9)	7 (9.1)	28 (36.4)	77 (〃)
西 炭		32 (43.9)	2 (2.7)	3 (4.1)	36 (49.3)	73 (〃)
計		210 (38.6)	39 (7.2)	36 (6.6)	259 (47.6)	544 (100)

11-3



11-5



11-4

教育程度別 區分	有 益	不 必 要	無 害 無 益	포 르 캤 다	計
無 學	19 (28.4)		4 (3.9)	80 (77.7)	103 (100)
専 習 得	28 (34.6)	3 (3.7)	4 (3.9)	46 (56.8)	81 (〃)
書 堂	6 (46.1)		1 (7.7)	6 (46.2)	13 (〃)
國 卒	72 (40.8)	11 (6.3)	11 (6.3)	82 (46.6)	176 (〃)
中 卒	24 (51.0)	7 (14.9)	6 (12.8)	10 (21.3)	47 (〃)
高 卒	32 (43.2)	11 (14.9)	8 (10.8)	23 (31.1)	74 (〃)
大 卒	25 (50.0)	7 (14.0)	2 (4.0)	12 (24.0)	46 (〃)
大 卒 以 上					4 (〃)
計	210 (38.6)	39 (7.2)	36 (6.6)	259 (47.6)	544 (100)

11-6

性 別 區 分	有 益	不 必 要	無 害 無 益	포 르 캤 다	計
男	140 (56.6)	30 (11.3)	17 (6.4)	79 (29.7)	266 (100)
女	70 (25.7)	9 (3.2)	19 (6.8)	180 (64.8)	278 (〃)
計	210 (38.6)	39 (7.2)	36 (6.6)	259 (47.6)	544 (100)

11-7

年 齡 別 區 分	有 益	不 必 要	無 害 無 益	포 르 캤 다	計
20~29	140 (45.6)	8 (6.1)	8 (6.1)	57 (43.2)	322 (100)
30~39	68 (42.3)	15 (9.3)	16 (9.9)	62 (38.5)	161 (〃)
40~49	35 (34.0)	10 (9.7)	8 (7.8)	50 (48.5)	103 (〃)
50~59	32 (39.5)	3 (3.7)	3 (3.7)	43 (53.1)	81 (〃)
60~69	9 (21.1)	3 (6.3)	1 (2.1)	30 (62.5)	43 (〃)
70~79	1 (16.2)			15 (93.8)	16 (〃)
80以上	1 (33.3)			2 (66.7)	3 (〃)
計	210 (38.6)	39 (7.2)	36 (6.6)	259 (47.6)	544 (100)

11-8

職 業 別 區 分	有 益	不 必 要	無 害 無 益	포 르 캤 다	計
無 職	68 (29.4)	9 (3.9)	17 (7.4)	137 (59.3)	231 (100)
農 業	73 (46.5)	9 (5.7)	5 (3.2)	70 (44.6)	157 (〃)
商 業	23 (41.8)	4 (7.3)	6 (10.9)	22 (40.0)	55 (〃)
公 務 員	14 (56.0)	9 (36.0)	1 (4.0)	1 (4.0)	25 (〃)
會 社 員	7 (58.3)	1 (8.3)		4 (33.3)	12 (〃)
勞 動 者	12 (32.4)	4 (10.8)	5 (13.5)	16 (43.2)	39 (〃)
土 木 業	5 (100.0)				5 (〃)
學 生	2 (22.2)	2 (4.0)		5 (55.6)	9 (〃)
外 司 施 業	6 (46.2)	1 (7.7)	2 (16.4)	4 (30.8)	13 (〃)
計	210 (38.6)	39 (7.2)	36 (6.6)	259 (47.6)	544 (100)

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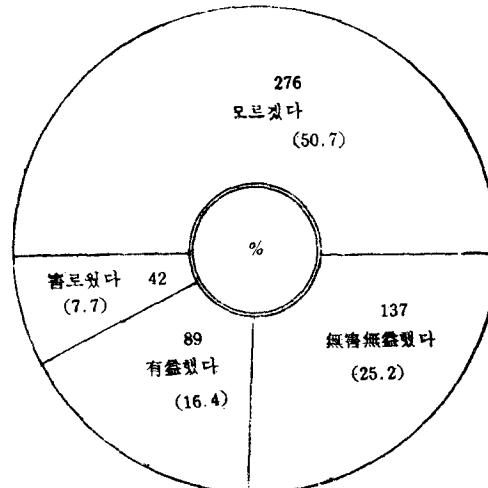
生活程度別	區分		有 益	不 必 要	無 害 無 益	모르겠다	計
	上	中					
上	8 (38.1)	1 (4.8)			11 (6.0)	12 (57.1)	21 (100)
中	73 (39.9)	24 (13.1)			75 (41.0)	75 (41.0)	183 (〃)
下	129 (37.9)	14 (4.1)			25 (7.4)	172 (50.6)	340 (〃)
計	210 (38.6)	39 (7.2)			36 (6.6)	259 (47.6)	544 (100)

11-10

出身地別	區分		有 益	不 必 要	無 害 無 益	모르겠다	計
	本 道	他 郡					
本 道	119 (40.6)	23 (7.5)			17 (5.8)	134 (45.7)	293 (100)
他 道	42 (33.9)	11 (8.9)			7 (5.6)	64 (51.6)	124 (〃)
以 北	32 (33.3)	4 (4.2)			11 (11.5)	49 (51.0)	96 (〃)
其 他	15 (53.6)				1 (3.6)	12 (42.9)	28 (〃)
計	210 (38.6)	39 (7.2)			36 (6.6)	259 (47.6)	544 (100)

먼저 地域別로 보면 「有益하다」는 率이 農村에서 더 높은 편이며 「모르겠다」에서 大都市
中心地인 서울의 白鹿洞이 가장 比率이 높아서 79.4%에 達하고 있음은 注目되어 教育程度
에 正比例해서 「有益하다」와 「不必要하다」共히 그 比率이 上昇하고 「모르겠다」는 率은 逆
比例해서 增大하고 있고 男子는 「有益하다」에서 女子는 「모르겠다」에서 각각 他的 倍程度
로 높은 比率을 보이고 있다. 또 年齡別로는 「有益하다」는 젊을수록 「모르겠다」는 나이 많
을수록 그 比率이 각각 높아지는 傾向을 보이며 職業別로는 公務員 會社員 土木業 等이 「有
益하다」와 「不必要하다」의 比率이 각각 높아지는 傾向을 보이며 「모르겠다」는 率은 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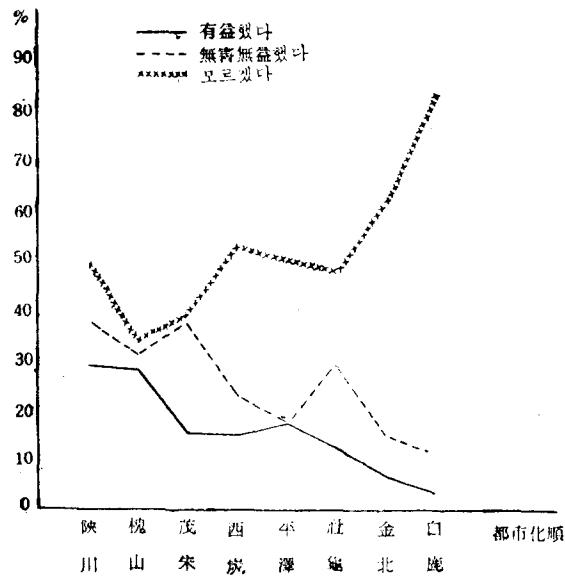
圖表 12-1 過去의 面議會는 住民에게 有益였는가 ? ?



12-2

地域別	區分	有益혔다	害로웠다	無害無益ဟ다	모르겠다	計
陝	川	19 (29.2)	4 (6.1)	25 (38.5)	32 (49.2)	65 (100)
槐	山	16 (28.1)	4 (7.0)	18 (31.6)	19 (33.3)	57 (〃)
社	龜	9 (12.7)	7 (9.9)	21 (29.6)	34 (47.9)	71 (〃)
平	澤	13 (17.8)	10 (13.7)	13 (17.8)	37 (50.7)	73 (〃)
白	鹿	2 (3.2)	2 (3.2)	7 (11.1)	52 (82.5)	63 (〃)
金	北	11 (6.9)	4 (6.2)	10 (15.4)	40 (61.5)	65 (〃)
茂	朱	12 (15.6)	6 (7.8)	29 (37.7)	30 (39.0)	77 (〃)
西	炭	11 (15.1)	7 (9.6)	17 (23.3)	38 (52.1)	73 (〃)
	計	89 (16.4)	42 (7.7)	137 (25.2)	276 (50.7)	544 (100)

12-3



12-4

教育程度別	區分	有益혔다	害로혔다	無害無益ဟ다	모르겠다	計
無學	12 (11.7)			15 (14.6)	76 (73.7)	103 (100)
한글解得	14 (17.3)	4 (5.0)		27 (33.3)	36 (44.4)	81 (〃)
書堂	5 (38.4)	1 (7.7)		4 (30.8)	3 (23.1)	13 (〃)
國卒	26 (14.8)	12 (6.8)		46 (26.1)	92 (52.5)	176 (〃)
中卒	12 (25.5)	2 (4.3)		13 (27.7)	20 (42.5)	47 (〃)
高卒	10 (13.6)	12 (16.2)		20 (27.0)	32 (43.2)	74 (〃)
大卒	8 (20.0)	11 (22.0)		10 (24.0)	17 (34.0)	46 (〃)
大卒以上	2 (50.0)			2 (50.0)		4 (〃)
	計	89 (16.4)	42 (7.7)	137 (25.2)	276 (50.7)	54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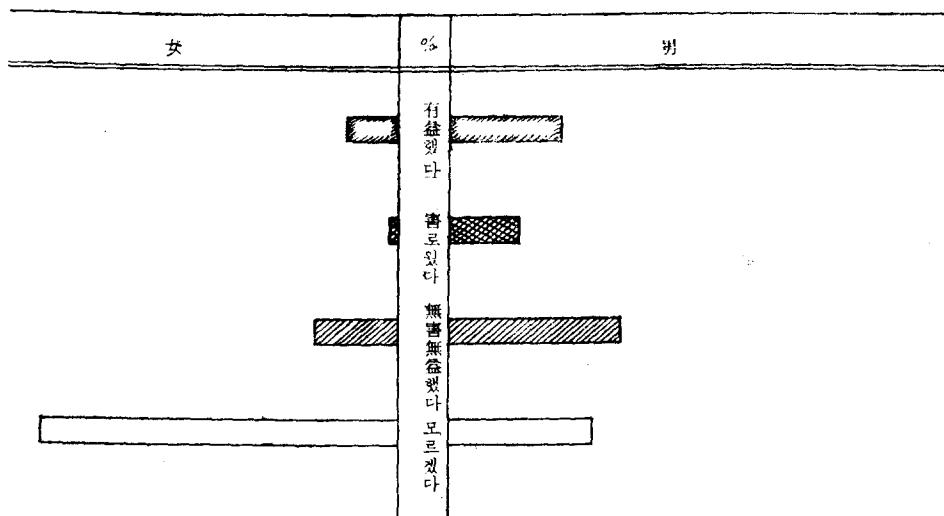
「有益하다」에서 가장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主婦가 大部分인 無職과 學生의 「모르겠다」는 率이 높은 것은 注目된다. 또 生活程度에 正比例해서 「有益하다」는 率이 높아가고 본교장사람 보다 타교장사람의 「有益하다」는 率이 높다.

이제 政府單位를 한層 낮추어서 邑面議會에 對한 住民의 價値觀을 살펴보면 다음의 그라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體的으로 「有益하다」는 反應이 16.4%로 前項의 市郡議會의 境遇

12-5

區分	有益했다	害로웠다	無害無益했다	모르겠다	計
男	60 (22.6)	37 (13.9)	92 (34.6)	77 (28.9)	266 (100)
女	29 (10.4)	5 (1.8)	45 (16.2)	199 (71.6)	278 ("")
計	89 (16.4)	42 (7.7)	137 (25.2)	276 (50.7)	544 (100)

12-6



12-7

區分	有益했다	害로웠다	無害無益했다	모르겠다	計
20~29	19 (14.4)	9 (6.8)	30 (27.7)	74 (56.1)	132 ("")
30~39	27 (16.8)	16 (9.9)	47 (29.3)	71 (44.0)	161 ("")
40~49	18 (17.5)	7 (6.8)	27 (26.2)	51 (49.5)	103 ("")
50~59	13 (16.0)	4 (5.0)	23 (28.4)	41 (50.6)	81 ("")
60~69	9 (18.8)	4 (4.9)	23 (14.6)	26 (54.1)	48 ("")
70~79	2 (12.5)		3 (18.8)	11 (68.7)	16 ("")
80以上	1 (33.3)			2 (66.7)	3 ("")
計	89 (16.4)	42 (7.7)	137 (25.2)	276 (50.7)	544 (100)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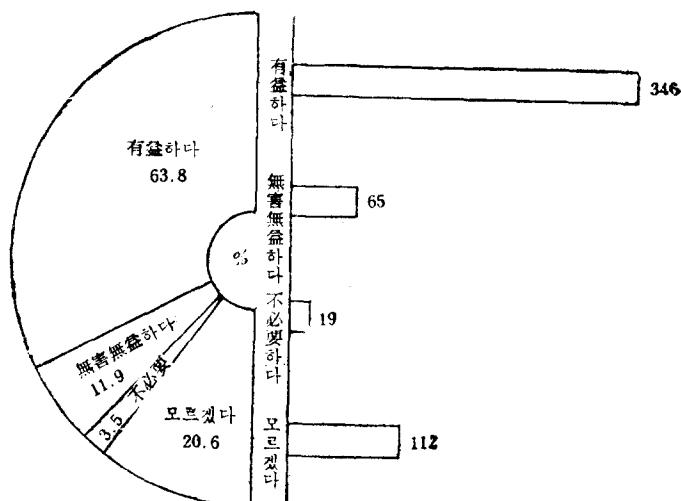
職業別	區分	有益 같다	害로웠다	無害無益했다	모르겠다	計
無職		31 (13.4)	9 (3.9)	40 (17.3)	151 (65.4)	231 (100)
農業		31 (19.7)	17 (10.8)	55 (35.0)	54 (34.4)	157 (〃)
商業		11 (20.0)	6 (10.9)	14 (25.5)	24 (43.6)	55 (〃)
公務員		4 (16.0)	6 (24.0)	11 (44.0)	4 (16.0)	25 (〃)
會社員		2 (16.7)	2 (7.0)	4 (33.3)	4 (33.3)	12 (〃)
勞動者		4 (10.8)		10 (27.0)	23 (62.2)	39 (〃)
上木業		3 (60.0)		1 (20.0)	1 (20.0)	5 (〃)
學生				1 (11.1)	8 (88.9)	9 (〃)
서비스業		3 (23.1)	2 (15.4)	1 (7.7)	7 (53.8)	13 (〃)
計		89 (16.4)	42 (7.7)	137 (25.2)	276 (50.7)	544 (100)

12-9

生活程度別	區分	有益 같다	害로웠다	無害無益했다	모르겠다	計
上		1 (4.8)		5 (23.8)	15 (71.4)	21 (100)
中		32 (17.0)	22 (12.0)	51 (28.4)	78 (42.6)	183 (〃)
下		56 (16.5)	20 (5.9)	81 (23.8)	183 (53.8)	340 (〃)
計		89 (16.4)	42 (7.7)	137 (25.2)	276 (50.7)	544 (100)

보다 훨씬 그 比率이 낮아진 反面 「모르겠다」「無害無益하다」는 無關心 無識의 比率이大幅增加되어 75%에 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民主政治란 밑으로부터의 政治이고 民主主義에熟達한 住民이라면 政府單位가 縮少되고 그 影響이 自己의 生活領域에 近接할수록 政治的

圖表 13-1 國會는 國民에게 有益한가?



關心이 增大한다는一般的인 原則에 비추어 볼때 市郡 議會보다도 邑面議會에 對한 關心度가 낮게 나타난 이러한 調查結果는 우리나라 國民의 自治意識이 얼마나 낮은 가를 端的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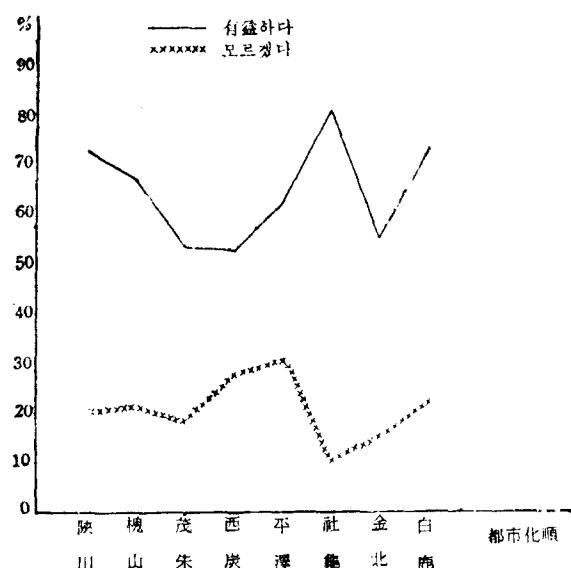
이번에는 國內에 對한 地方住民의 價値를 살펴보고 이것을 地方議會의 境遇와 어떠한 比較가 되는가를 알아보자.

「國會는 國民에게 有益한가」를 묻는 設問에 對한 應答을 分析해보면 다음의 그라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優先「有益하다」는 應答率이 63.8%로서 地方議會와는 顯著히 對照가 되는 高率을 보이는 한편「必要없다」3.57%를 비롯하여「無害無益하다」「모르겠다」는 無關心度와 無識度가 각각 11.9% 20.6%로서 相當한 比率을 보이고 있는 點은 注目된다.

13-2

地域別	區分	有益하다	不必要하다	無害無益하다	모르겠다	計
陝	山	47 (72.3)	1 (1.5)	4 (6.1)	13 (20.0)	65 (100)
槐	山	38 (66.7)	2 (3.5)	5 (8.8)	12 (21.1)	57 (〃)
社	龜	57 (80.3)	5 (7.0)	2 (2.8)	7 (9.9)	71 (〃)
平	澤	45 (61.6)		6 (8.2)	22 (30.1)	73 (〃)
白	鹿	46 (73.0)	2 (3.2)	1 (1.6)	14 (22.2)	63 (〃)
金	北	35 (53.8)	2 (3.1)	18 (27.7)	10 (15.4)	65 (〃)
茂	朱	41 (53.2)	5 (6.5)	17 (22.1)	14 (18.2)	77 (〃)
西	炭	38 (52.1)	2 (2.7)	12 (16.4)	20 (27.4)	73 (〃)
計		347 (63.8)	19 (3.5)	65 (11.9)	112 (20.6)	54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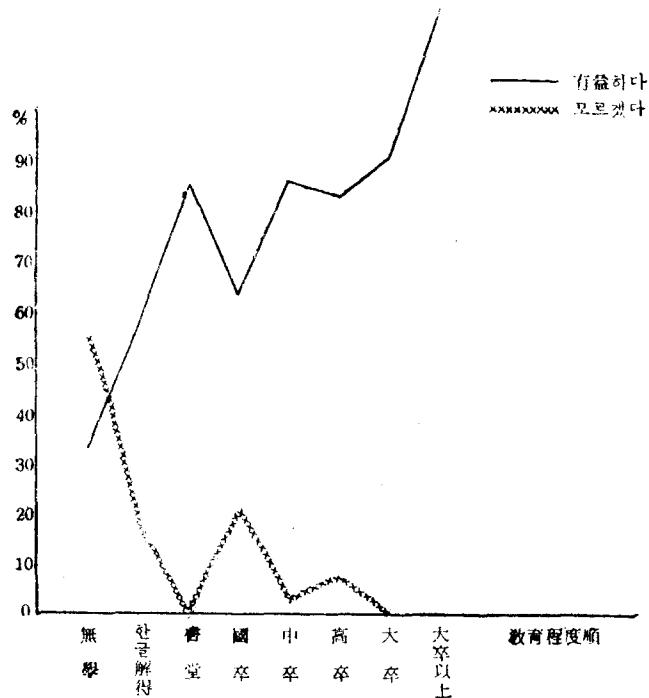
13-3



13-4

教育程度別	區分	有益하다	不必要하다	無害無益하다	모르겠다	計
無學	學	34 (33.0)	4 (3.9)	8 (7.8)	57 (55.3)	103 (100)
한글解得	得	46 (56.8)	5 (6.2)	16 (19.8)	14 (17.3)	81 ("")
書堂	堂	11 (84.6)		2 (15.4)		13 ("")
國卒	卒	111 (63.1)	3 (1.7)	27 (15.3)	35 (19.9)	176 ("")
中卒	卒	40 (85.1)	2 (4.3)	4 (8.5)	1 (2.1)	47 ("")
高卒	卒	61 (82.3)	3 (4.1)	5 (6.8)	5 (6.8)	74 ("")
大卒	卒	41 (90.0)	2 (4.0)	3 (6.0)		46 ("")
大卒以上		4 (100.0)				4 ("")
計		347 (63.8)	19 (3.5)	65 (11.9)	112 (20.6)	544 (100)

13-5



13-6

性別	區分	有益하다	不必要하다	無害無益하다	모르겠다	計
男		197 (74.1)	11 (4.1)	34 (12.8)	24 (9.0)	266 (100)
女		150 (54.0)	8 (3.0)	31 (11.3)	88 (31.7)	278 ("")
計		347 (63.8)	19 (3.5)	65 (11.9)	112 (20.6)	544 (100)

13-7

年齢別	區分					計
	有益하다	不必要하다	無害無益하다	모르겠다		
20~29	98 (74.2)	3 (2.3)	9 (6.8)	22 (16.7)	132 (100)	
30~39	114 (70.7)	2 (1.2)	21 (13.3)	24 (14.8)	161 (〃)	
40~49	67 (65.0)	5 (4.9)	12 (11.7)	19 (18.4)	103 (〃)	
50~59	41 (50.6)	5 (6.2)	16 (19.8)	19 (23.5)	81 (〃)	
60~69	18 (37.5)	4 (8.3)	6 (12.5)	20 (41.7)	48 (〃)	
70~79	8 (50.0)		1 (6.3)	7 (43.7)	16 (〃)	
80以上	2 (66.7)			1 (33.3)	3 (〃)	
計	347 (63.8)	19 (3.5)	65 (11.9)	112 (20.6)	544 (100)	

13-8

職業別	區分					計
	有益하다	不必要하다	無害無益하다	모르겠다		
無職	136 (58.9)	8 (3.5)	27 (11.7)	59 (25.5)	231 (100)	
農業	97 (61.8)	4 (2.5)	21 (13.4)	35 (22.3)	157 (〃)	
商業	36 (65.5)	3 (5.5)	10 (18.2)	6 (10.9)	55 (〃)	
公務員	24 (96.0)		1 (4.0)		25 (〃)	
會社員	9 (75.0)	1 (8.3)		2 (16.7)	12 (〃)	
勞動者	22 (59.5)	2 (5.4)	4 (10.8)	9 (24.3)	39 (〃)	
土木業	4 (80.0)		1 (20.0)		5 (〃)	
學生	8 (88.9)	1 (11.1)			9 (〃)	
Service	11 (84.6)		1 (7.7)	1 (7.7)	13 (〃)	
計	347 (63.8)	19 (3.5)	65 (11.9)	112 (20.6)	544 (100)	

13-9

生活程度別	區分					計
	有益하다	不必要하다	無害無益하다	모르겠다		
上	14 (66.6)	1 (4.8)		6 (28.6)	21 (100)	
中	134 (73.2)	6 (3.3)	17 (9.3)	26 (14.2)	183 (〃)	
下	199 (58.5)	12 (3.5)	48 (14.5)	80 (23.5)	340 (〃)	
計	347 (63.8)	19 (3.5)	65 (11.9)	112 (20.6)	544 (100)	

13-10

出身地別	區分					計
	有益하다	不必要하다	無害無益하다	모르겠다		
本邦	196 (65.9)	9 (3.1)	38 (13.0)	49 (16.7)	293 (100)	
他道	76 (61.3)	5 (4.2)	12 (9.7)	31 (25.0)	124 (〃)	
他道	55 (57.3)	1 (3.6)	13 (13.5)	24 (25.0)	96 (〃)	
以北	18 (64.3)		2 (7.1)	7 (25.0)	28 (〃)	
其他	2 (66.7)			1 (33.3)	3 (〃)	
計	347 (63.8)	19 (3.5)	65 (11.9)	112 (20.6)	544 (100)	

宗敎別	區分	有 益 하 다	不 必 要 하 다	無 善 無 益 하 다	모 르 겠 다	計
佛 教		33 (68.7)	3 (6.3)	5 (10.4)	7 (14.6)	48 (100)
基 督 教		42 (79.2)		4 (7.5)	6 (1.3)	53 (〃)
天 主 教		23 (71.9)	3 (9.4)	1 (3.1)	5 (15.6)	32 (〃)
儒 教		15 (53.6)	2 (7.1)	6 (21.4)	5 (17.9)	28 (〃)
天 道 教		2 (100.0)				2 (〃)
其 他		3 (42.9)		3 (42.9)	1 (14.3)	5 (〃)
無 宗 教		231 (61.4)	11 (3.0)	46 (12.2)	88 (23.4)	376 (〃)
	計	347 (63.8)	19 (3.5)	65 (11.9)	112 (20.6)	544 (100)

地域別로 보면 農村보다 都市에서 「有益하다」는 比率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고 教育程度에 따라서도 그 比率이 急增해 가며 女子보다 男子가 高率을 보인다. 正 年齡에 正比例하여 「有益하다」는 率이 增大해가고 「모르겠다」는 率은 逆比例해서 減少하며 公務員과 學生에게서 「有益하다」는 率이 많고 無職 農業 勞動者에게서 「모르겠다」는 率이 反對로 높은데 生活程度別로는 中流에서 「有益하다」는 率이 높고 上流層에서 「모르겠다」는 率이 上昇하고 있음이 注目되며 宗敎別로는 基督敎 天主敎에서 「有益하다」는 率이 가장 높다.

以上의 調査結果를 総合하여 거기에 들어나는 主要傾向을 集約해 보면 (1) 地方議會가 「有益하다」고 그 價值를 認定한 比率은 市郡議會가 38.6% 邑面議會가 16.4%인데 比하여 國會의 價值를 認識하는 率은 63.8%로서 地方議會보다 國會의 價值를 더 認定하고 따라서 地方自治政보다 國政에 더 關心을 보이고 있으나 (2) 地方議會나 國會를 莫論하고 代議制自體에 對한 關心度나 認識의 程度가 極히 微弱하여 自治意識은 別論 一般政治意識은 稀薄하다는 一面을 傍證해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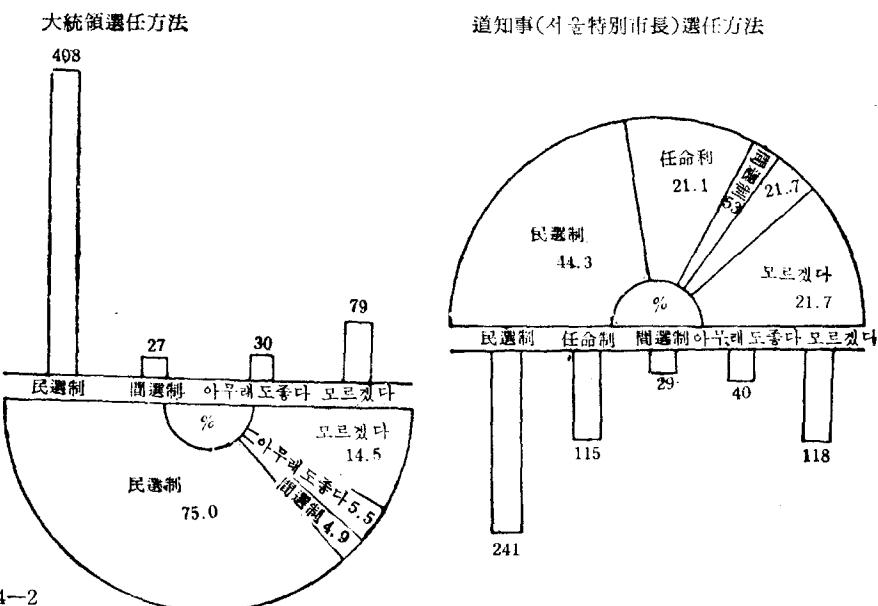
六. 地方自治行政執行機關의 選任方法에 對한 見解 및 價值觀

自治意識이 地方自治와 民主主義 存立의 基礎가 된다는 것은 前述한바이나 그 實態를 正確히 把握하는 일은 大端히 어렵다. 人間의 意識이라는 것은 本來 心理學 社會學 人類學 等의 諸分野에 密接히 關係되는 것이며 計數的으로 이것을 測定하기가 참으로 까다롭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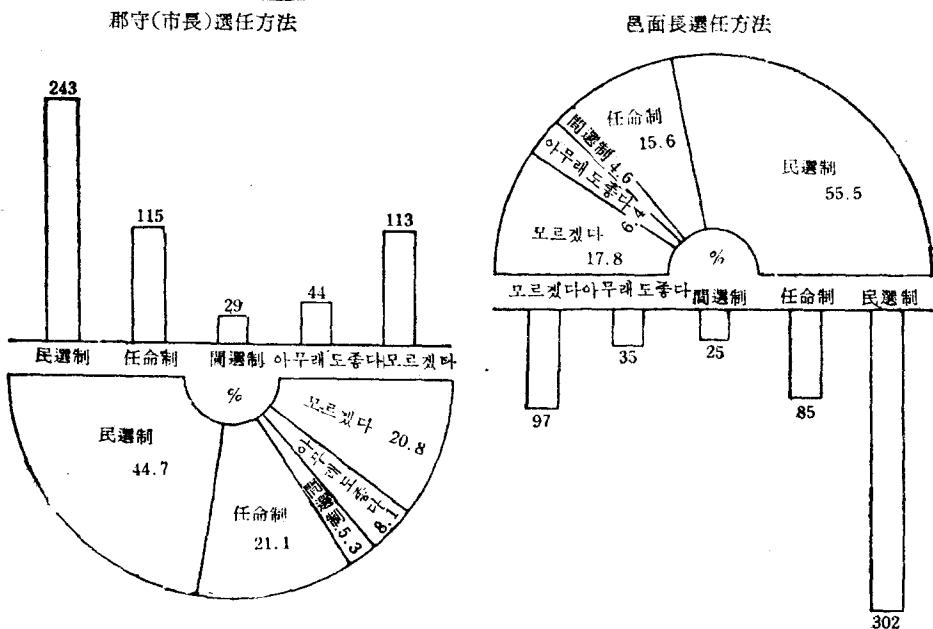
이제 問題를 바꾸어 地方自治行政의 執行을 責任지는 長의 選任方法에 對한 地方住民의 見解와 거기에 따르는 價值觀을 나누어 보겠다.

그런데 一般的으로 執行機關의 選任方法에는 세가지 類型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는 議會의 執行機關이 各各 別途로 選任되는 型態인데 이 類型에는 다시 (1) 各各 住民의 選舉에 依하는 것과 (美國에서의 市長 및 市議會의 選出制度 4.19 以後 5.16 軍事革命까지의 우리나라

■表 14-1



■表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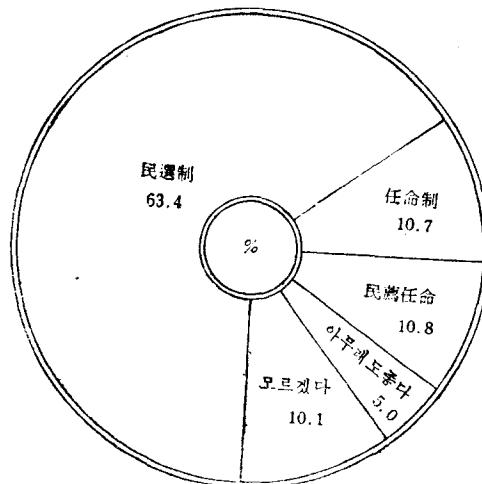


斗制度, 日本의 現地方自治制度) (2) 國家가 任命하는 것(例, 傳統的으로 中央集權의 유
亞大陸系의 諸國에서 볼 수 있는 道知事官選任: 任命制, 全體主義國家의 市邑面長 任命制 및 現
行 우리나라의 制度) 이 있고 둘째로는 議會가 執行機關을 選出하는 形態인데 여기에도 두
가지 類型으로 分類하여 (1) 議會內에서 選出하는 것과 (例, 佛蘭西의 Commune) (2) 議會

外에서 選出하는 것(例, 美國의 市議會支配人制와 地方自治法의 2次改正이 있기까지의 우리나라 町邑面長選任制度)이 있다. 마지막 셋째로 地方議會가 執行府를 兼하는 類型인데 英國의 것과 美國의 委員會制度가 여기에 屬한다.

以上과 같이 世界主要國家에서 찾아 볼 수 있는 執行機關의 選任制度 세 가지 類型과 그것을 들을 다시 細分해본 다섯 가지 形態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實驗해 본 적이 있는 세 가지 主要方法 即 民選制 任命制 等의 形態에 對하여 地方自治行政의 執行機關 選任方法으로 住民이 어느것을 願하는가 即 이 問題에 對한 住民의 見解와 價值觀은 어떠한가를 調査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圖表 14-3 里洞長選任方法



14-4

執行機關의 選任方法

區分 執行機關別	民選制	任命制	間選制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計
道知事(서울市長)	242 (44.3)	115 (21.1)	29 (5.3)	40 (7.4)	118 (21.7)	544 (100)
市長…郡守	243 (44.7)	115 (21.1)	29 (5.3)	44 (8.1)	113 (20.8)	"
邑面長	302 (55.5)	85 (15.6)	25 (4.6)	35 (6.4)	97 (17.8)	"
里洞長	345 (63.4)	58 (10.7)	59 (10.8)	27 (5.0)	55 (10.1)	"
計	1,132 (52.1)	373 (17.1)	142 (6.5)	146 (6.7)	383 (17.6)	2,176 (100)

위의 圖表는 地方行政의 執行機關 選任方法에 對한 住民의 反應을 集計한 것인데 우선 行政單位의 高下를 不問하고 세 가지 選任方法中 民選制를 願하는 比率이 52.1%로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음에 着眼하게 된다. 그리고 任命制와 間選制는 각각 17.1%, 6.5% 인데 「모르겠다」 「아무래도 좋다」는 사람은 각각 17.6%, 6.7%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모르겠다」 「아무래도 좋다」를 滑懶的인 無關心으로 보고 이를 一括하여 「無關心」이라고 斷定한다

면 그 比率은 24.3%로서 總應答者の 거의 四分의一에 該當한다는 것은 注目할만 하다. 한편 좀더 注意깊게 보면 民選制의 支持率은 行政單位가 작아질수록 거기에 反比例해서 增大하고 있는데 反하여 任命制에 對한 支持率은 正比例해서 減少하고 있으며 「아무래도 좋다」와 「모르겠다」의 「無關心」에 該當하는 比率도 行政單位가 작아질수록 正比例해서 減少하는 傾向이 確實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傾向은 地方住民이 行政單位가 작아지면서 自己들의 生活領域에 接近할 수록 거기에 對한 關心의 程度가 強해지고 따라서 地方自治行政의 執行을 責任지는 長의 選任問題도 行政單位가 작아질수록 住民들이 直接 選舉에 依하여 決定하기를 더 願한다는 것을 意味한다고 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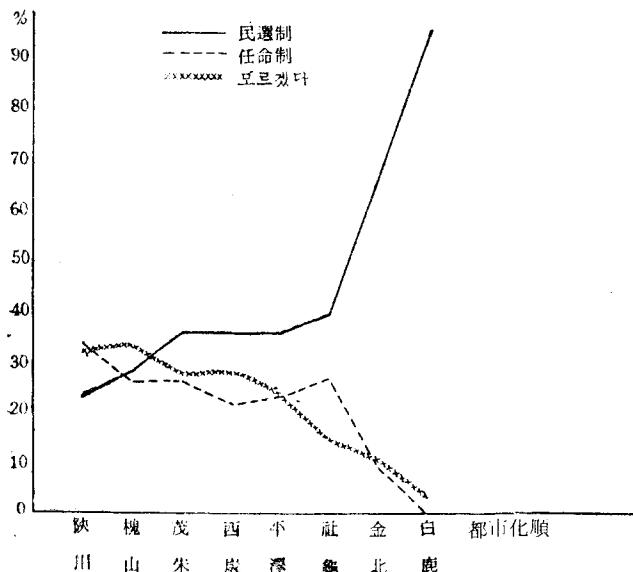
大統領의 選任方法에 對한 反應은 앞서 提示한 頻度表의 集計에서 除外하였는데 그理由는 大統領이라는 特別한 性格으로 보아 다른 地方自治行政의 執行機關選任方法에 對한 反應과 同質觀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오히려 一般政治意識에 더 關連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大統領의 選任方法中 民選制에 對한 支持率은 壓倒的이며 各級 地方行政 執行機關의 境遇보다도 훨씬 높다는 點을 指摘해 두어야겠다. 그러므로 여기서 一般政治意識이 地方自治意識보다 越等히 強하다거나 또는 國政에 對한 關心이 地方自治政에 對한 關心보다 그 程度가 높다고는 速斷하기 어려우며 이 問題는 좀더 檢討해볼 餘地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시 같은 問題에 對해서 自治行政의 單位別로 살펴보건대 먼저 道知事의 選任方法으로 民選制에 對한 支持率이 大體적으로 任命制의 境遇보다 높되 兩者間의 差異는 極히 微少한데 反하여 서울特別市長의 選任方法으로는 民選制에 對한 支持率이 壓倒的으로 높고 任命制에 對한 賛成率은 至極히 微弱함을 알 수 있다.

14-5

道知事(서울特別市長)는 어떻게 품는게 좋은가?

地域別 區 分	民選制	任命制	間選制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計
陝川	15 (23.1)	22 (33.8)	1 (1.5)	6 (9.2)	21 (32.3)	65 (100)
槐山	16 (28.1)	15 (26.3)	3 (5.3)	4 (7.0)	19 (33.3)	57 (〃)
社龜	28 (39.4)	19 (26.8)	9 (12.7)	5 (7.0)	10 (14.1)	71 (〃)
平澤	26 (35.6)	17 (23.3)	6 (8.2)	6 (8.2)	18 (24.7)	73 (〃)
白鹿	60 (95.2)			1 (1.6)	2 (3.2)	63 (〃)
金北	43 (66.2)	6 (9.2)		9 (13.8)	7 (10.8)	65 (〃)
茂朱	27 (35.1)	20 (26.0)	4 (5.2)	4 (5.2)	21 (27.3)	77 (〃)
西炭	26 (35.6)	16 (21.9)	6 (8.2)	5 (6.8)	20 (27.4)	73 (〃)
計	241 (44.3)	115 (21.1)	29 (5.3)	40 (7.4)	118 (21.7)	544 (100)

道知事의 境遇에도 中間都市인 光州의 社龜洞과 小都市인 平澤에서는 民選制 支持率이僻地보다若干 強勢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都市化할수록 住民이 民選制를 더 願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같은 서울地區면서도 都市中心地인 白鹿洞과 변두리에 屬하는 金北洞



14-7

教育程度別	區分	民選制	任命制	間選制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計
		(%)	(%)	(%)	(%)	(%)	(%)
無學	23 (22.3)	7 (6.8)		13 (12.6)	60 (58.2)		103 (100)
한글解得	38 (46.9)	12 (29.6)	2 (2.5)	7 (8.6)	22 (27.2)		81 ("")
書堂卒	6 (46.2)	5 (38.5)			2 (15.4)		13 ("")
國卒	78 (44.3)	44 (25.0)	10 (5.7)	17 (9.7)	27 (30.7)		176 ("")
中卒	19 (40.4)	13 (27.7)	7 (14.9)	2 (4.3)	6 (12.8)		47 ("")
高卒	40 (54.1)	22 (29.7)	9 (12.2)	1 (1.4)	1 (1.4)		74 ("")
大卒	33 (74.0)	12 (24.0)	1 (2.0)				46 ("")
大卒以上	4 (100.0)						4 ("")
計	241 (44.3)	115 (21.1)	29 (5.3)	40 (7.4)	118 (21.7)		54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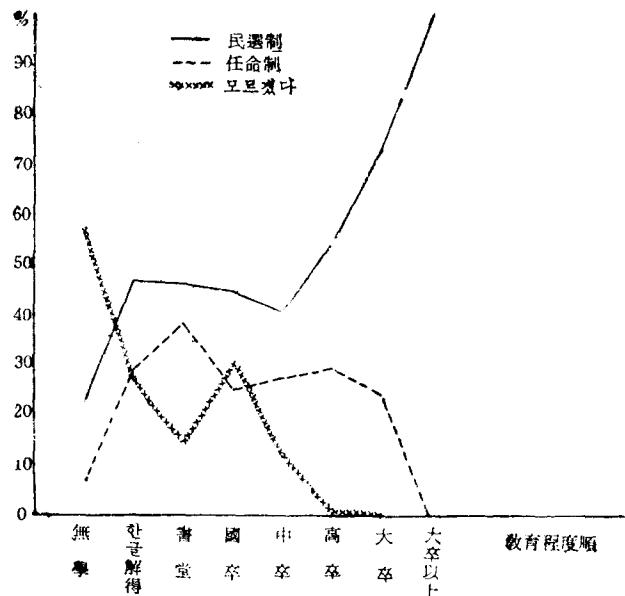
이 언제나 현저한 差異를 보이는데 여기서도 民選制 支持率이 白鹿洞의 95.2%와 金北洞의 66.2%間의 差異를 보이는 点은 注目할만 하다.

다음에는 같은 問題에 對해서 教育程度의 差異가 頻度分布에 어떻게 作用하였나를 살펴보자.

圖表에서 表示된 바와 같이 先 民選制에 對한 支持率은 教育程度의 높이에 正比例하고 「아무래도 좋다」라는 積極的인 無關心과 「모르겠다」는 消極的인 無關心을 合해서 實質한 見解를 表示하지 않은 「無關心」은 教育程度에 逆比例해서 減少하고 任命制에 對해서는 두드러진 比例關係는 없으나 高等教育程度에서 平均 25%의 頻度를 차지하고 있는 点으로 보아 注目할만 하다.

그리고 教育程度가 낮은 無學 한글解得 國民學校卒業 等의 階層에서 無關心으로 反應하

14-8



14-9

年齢別	區分	民選制	任命制	間選制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計
20~29	65 (59.1)	30 (22.7)	6 (4.5)	9 (6.8)	21 (15.9)	132 (100)	
30~39	65 (40.4)	47 (29.2)	16 (9.9)	11 (6.8)	22 (13.7)	161 ("")	
40~49	45 (43.6)	17 (16.5)	5 (4.9)	8 (7.8)	28 (27.2)	103 ("")	
50~59	41 (50.6)	13 (16.0)	1 (1.3)	8 (9.9)	18 (22.2)	81 ("")	
60~69	22 (45.8)	5 (10.4)	1 (2.1)	3 (6.3)	17 (35.4)	48 ("")	
70~79	2 (12.5)	3 (18.8)		1 (6.3)	10 (62.4)	16 ("")	
80以上	1 (33.3)				2 (66.7)	3 ("")	
計	241 (44.3)	115 (21.1)	29 (5.3)	40 (7.4)	118 (21.7)	544 (100)	

14-10

性別	區分	民選制	任命制	間選制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計
男	139 (52.3)	75 (28.2)	17 (6.5)	10 (3.9)	24 (9.1)	266 (100)	
女	102 (36.7)	40 (14.4)	12 (4.3)	30 (10.8)	94 (33.8)	278 ("")	
計	241 (44.3)	115 (21.1)	29 (5.4)	40 (7.5)	118 (21.7)	544 (100)	

는 比率이 높은 것은 各選任方法이 지니는 長短點을 모르기 때문에 이 問題에 對한 見解나 價値觀이 形成되지 못한데에 가장 큰 原因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年齢別로 보면 69 歲까지는 年齢의 高下를 莫論하고 民選制에 對한 支持率이 任命制보다

越等하니 높지만 年齡別로 어떤 特徵지울만한 傾向이나 比例關係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任命制에 對한 支持率에서는 年齡의 增加에 逆比例하여 增大하는 傾向이 보인다.

다시 男女性別로 이를 考察하여 보면 民選制에 對한 賛成率은 男女가 각각 52.3% 36.7%인데 女性의 境遇에는 無關心의 應答率이 民選制의 支持率보다 훨씬 높으며 男性에 比해서 約 3倍나 된다. 任命制에 對한 反應은 男女가 각각 28.2% 14.4%인데 이는 任命制 支持率의 半數에 該當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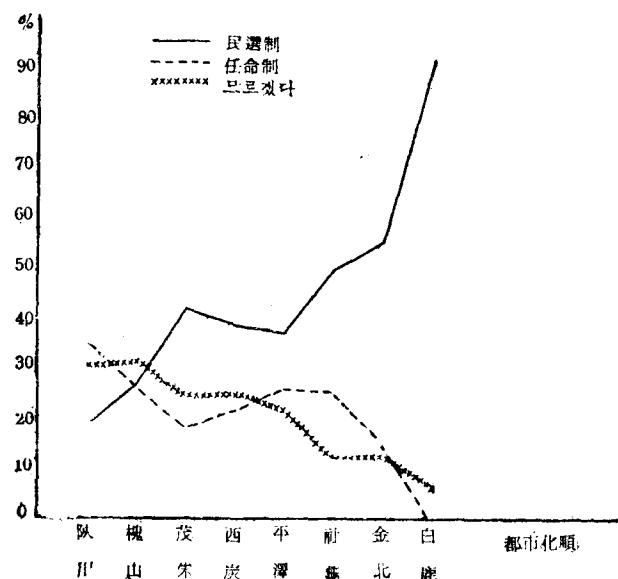
이제 單位를 바꾸어서 郡守 市長의 選任方法에 對한 位民의 反應을 살펴 보겠다.

14-11

市長・郡守는 어떻게 뽑는게 좋은가?

地域別	區 分	民 選 制	任 命 制	間 選 制	아무래도 좋다	모 르 겠 다	計
陝	山	12 (18.5)	23 (35.5)	4 (6.2)	6 (9.2)	20 (30.8)	65 (100)
槐	山	15 (26.3)	15 (26.3)	5 (8.8)	4 (7.0)	18 (31.6)	57 (〃)
社	龜	35 (49.3)	18 (25.4)	4 (5.6)	6 (8.5)	8 (11.3)	71 (〃)
平	澤	27 (37.0)	19 (26.0)	4 (5.5)	7 (9.6)	16 (21.9)	73 (〃)
白	鹿	58 (92.1)			1 (1.6)	4 (6.3)	63 (〃)
金	北	36 (55.4)	10 (15.4)	1 (1.5)	10 (15.4)	8 (12.3)	65 (〃)
茂	朱	32 (41.6)	14 (18.2)	5 (6.5)	7 (9.1)	19 (24.7)	77 (〃)
西	炭	28 (38.4)	16 (21.9)	6 (8.2)	3 (4.1)	20 (27.4)	73 (〃)
計		243 (44.7)	115 (21.1)	29 (5.3)	44 (8.1)	113 (20.8)	54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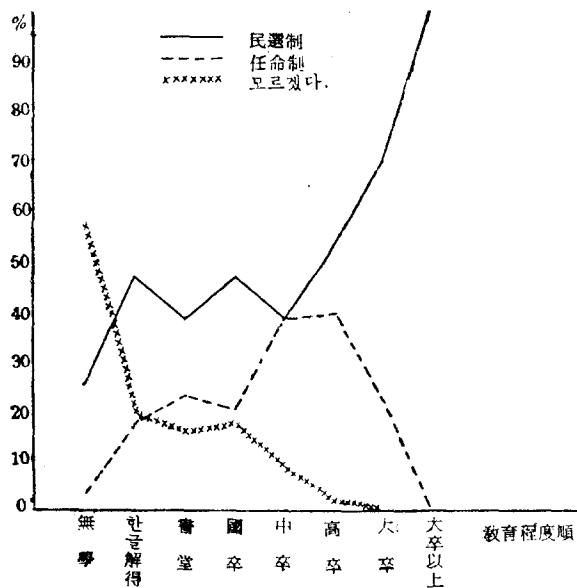
14-12



14-13

教育程度別	區分	民選制	任命制	間選制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計
無學	26 (25.2)	4 (3.9)	1 (1.0)	13 (12.6)	59 (57.3)	103 (100)	
한글解得	38 (46.9)	14 (17.3)	3 (3.7)	10 (12.3)	16 (19.8)	81 (〃)	
書堂卒	5 (38.4)	3 (23.1)	1 (7.7)	2 (15.4)	2 (15.4)	13 (〃)	
國卒	82 (46.5)	36 (20.5)	11 (6.3)	16 (9.1)	31 (17.6)	176 (〃)	
中卒	18 (38.3)	18 (38.3)	6 (12.8)	1 (2.1)	4 (8.5)	47 (〃)	
高卒	39 (52.6)	29 (39.2)	3 (4.1)	2 (2.7)	1 (1.4)	74 (〃)	
大卒	31 (70.0)	11 (22.1)	4 (8.0)			46 (〃)	
大卒以上	4 (100.0)					4 (〃)	
計	243 (44.7)	115 (21.1)	29 (5.3)	44 (8.1)	113 (20.8)	544 (100)	

14-14



14-15

年令別	區分	民選制	任命制	間選制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計
20~29	65 (49.2)	33 (25.0)	6 (4.6)	9 (6.8)	19 (14.4)	132 (〃)	
30~39	69 (42.8)	45 (28.0)	14 (8.7)	8 (5.0)	25 (15.5)	161 (〃)	
40~49	45 (43.7)	19 (18.4)	6 (5.9)	9 (8.7)	24 (23.3)	103 (〃)	
50~59	41 (50.6)	11 (13.6)	2 (2.5)	10 (12.3)	17 (21.0)	81 (〃)	
60~69	19 (38.6)	5 (10.4)	1 (2.1)	7 (14.6)	16 (33.3)	48 (〃)	
70~79	2 (12.5)	2 (12.5)		1 (6.3)	11 (68.7)	16 (〃)	
80以上	2 (66.7)				1 (33.3)	3 (〃)	
計	243 (44.7)	115 (21.1)	29 (5.3)	44 (8.1)	113 (20.8)	544 (100)	

性 別	區 分		民 選 制	任 命 制	間 選 制	아무래도 좋다	모 르 겠 다	計
	男	女	127 (47.7)	78 (29.3)	22 (8.3)	17 (6.4)	22 (8.3)	266 (100)
計			243 (44.7)	115 (21.1)	29 (5.3)	44 (8.1)	113 (20.8)	544 (100)

먼저 地域別로 보아서 圖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都市地域에서는 民選制를 支持하는 比率이 두드러지게 높은데 僕地는 地方에 따라 民選制 對 任命制의 比率이 正反對로 바뀌는 境遇도 있어서 一定한 傾向을 잡기가 어렵다. 無關心의 程度는 여기서도 亦是 都市化의 程度에 反比例하고 있으며 特히 陜川地區에서는 任命制 支持率과 無關心應答率이 각각 35.5%~40%로서 가장 높은 頻度를 보이고 있음은 注目할만한 點이다.

年齡別로 보면 民選制가 좋다는 率이 年齡의 高下를 不問하고 다른 制度에 比해 높은 것을 一見에 알수 있으나 年齡順으로 別다른 差異는 없다. 任命制에 對한 賛成率은 大略 20%程度인데 그 頻度率이 年齡에 反比例하여 減少하고 있는 事實은 注目할만하며 反對로 無關心한 反應을 보인 比率은 年齡에 正比例하여 增大하고 있다.

다시 男女性別로 比較하여 보면 男女가 다 같이 民選制에 對해서 높은 支持率을 나타내는 한편 女性的 境遇에는 無關心의 程度가 상당히 높아서 그 比率이 民選制 支持率과 거의 같은 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任命制 支持率은 男性이 29.3%인데 女性에 比하여 거의 2倍以上을 차지하고 있으며 間選制에 對한 支持率은 男女를 不問하고概히 낮은 편인데 이것은 亦是 이 制度에 對한 體驗期間이 짧았다는 起因하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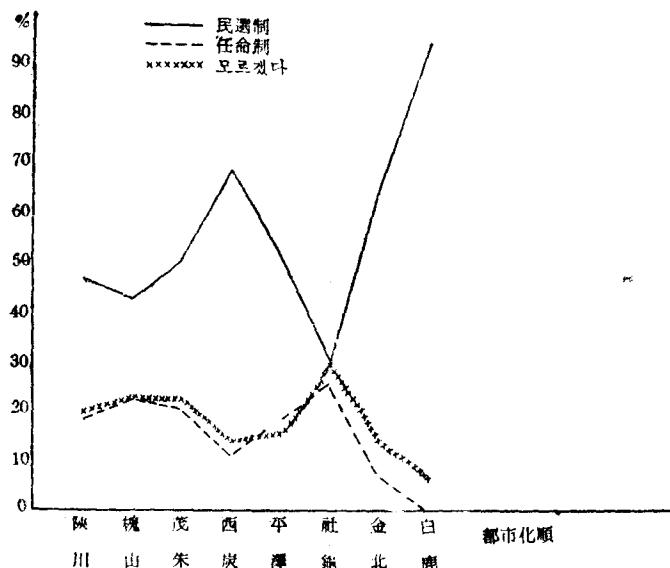
行政單位를 더 낮추어 이번에는 邑面長의 選任方法에 對한 住民의 意思를 알아 보자.

다음의 圖表가 나타내듯이 行政單位가 낮아지고 住民의 生活領域에 近接함에 따라 民選制의 支持率은 上級 執行機關의 境遇보다 한결 높아졌으며 이와 對照的으로 無關心의 反應率은 輒然 減少되었다. 任命制에 對한 支持率도 마찬가지로 減少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다.

邑面長을 어떻게 뽑는게 좋은가?

地 域 別	區 分		民 選 制	任 命 制	間 選 制	아무래도 좋다	모 르 겠 다	計
	陜 川	槐 山	23 (46.2)	12 (18.5)	1 (1.5)	9 (13.8)	13 (20.0)	65 (100)
社 龜	21 (29.6)	18 (25.4)	7 (9.9)	5 (7.0)	20 (28.2)	71 (〃)	71 (〃)	
平 澤	37 (50.7)	13 (17.8)	7 (9.6)	5 (6.8)	11 (6.3)	73 (〃)	73 (〃)	
白 鹿	59 (93.7)				4 (6.3)		63 (〃)	
金 北	42 (64.6)	5 (17.8)	1 (1.5)	8 (12.3)	9 (13.8)		65 (〃)	
慶 朱	39 (50.6)	16 (20.8)	3 (3.9)	2 (2.6)	17 (22.1)		77 (〃)	
西 炭	50 (68.5)	8 (11.0)	4 (5.5)	1 (1.4)	10 (13.7)		73 (〃)	
計	302 (55.5)	85 (15.6)	25 (4.6)	35 (6.4)	97 (17.8)		544 (100)	

1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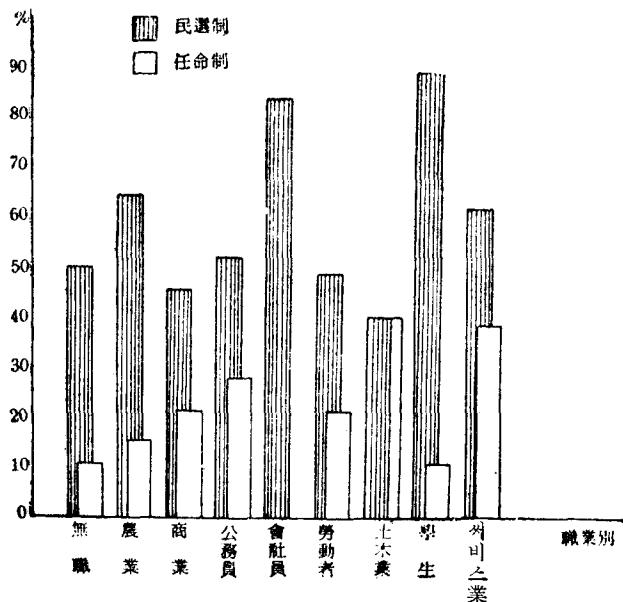
14-19

教育程度別	民選制	任命制	間選制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計
無學	38 (36.9)	4 (3.9)	1 (1.0)	12 (11.7)	48 (46.5)	103 (100)
한글解得	50 (61.7)	9 (11.1)	2 (2.6)	7 (8.6)	13 (16.0)	81 (〃)
舊堂卒	10 (76.9)	1 (7.7)		1 (7.7)	1 (7.7)	13 (〃)
國卒	104 (59.1)	31 (17.6)	8 (4.5)	9 (5.2)	24 (13.6)	176 (〃)
中卒	20 (42.6)	10 (21.3)	9 (19.1)	2 (4.2)	6 (12.8)	47 (〃)
高卒	46 (62.1)	18 (24.3)	3 (4.1)	4 (5.4)	3 (4.1)	74 (〃)
大卒	34 (68.0)	12 (24.0)	2 (4.0)		2 (4.0)	46 (〃)
大卒以上	3 (75.0)	1 (25.0)				4 (〃)
計	302 (55.5)	85 (15.6)	25 (4.6)	35 (6.4)	97 (17.8)	544 (100)

14-20

職業別	民選制	任命制	間選制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計
無職	117 (50.1)	26 (11.3)	9 (3.9)	19 (8.2)	60 (26.0)	231 (100)
農業	101 (64.3)	24 (15.3)	8 (5.1)	8 (5.1)	16 (10.2)	157 (〃)
商業	25 (45.5)	12 (21.8)	2 (3.6)	3 (5.5)	13 (23.6)	55 (〃)
公務員	13 (52.0)	7 (28.0)	3 (12.0)	1 (4.0)	1 (4.0)	25 (〃)
會社員	10 (83.3)		1 (8.3)	1 (8.3)		12 (〃)
勞動者	18 (48.6)	8 (21.6)	2 (5.4)	2 (5.4)	7 (2.7)	37 (〃)
土木業	2 (40.0)	2 (40.0)		1 (20.0)		5 (〃)
學生	8 (88.9)	1 (11.1)				9 (〃)
外埠業	8 (61.5)	5 (38.5)				13 (〃)
計	302 (55.5)	85 (15.6)	25 (4.6)	35 (6.4)	97 (17.8)	544 (100)

14-21



14-22

年齢別	民選制	任命制	間選制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計
20~29	70 (53.0)	25 (18.9)	8 (6.1)	12 (9.1)	17 (12.9)	132 (100)
30~39	95 (59.0)	29 (18.0)	9 (5.6)	7 (4.4)	21 (13.0)	161 (〃)
40~49	55 (53.4)	16 (15.5)	5 (4.9)	6 (5.8)	21 (20.4)	103 (〃)
50~59	48 (59.3)	10 (12.3)	3 (3.7)	5 (6.2)	15 (18.5)	81 (〃)
60~69	27 (56.3)	4 (8.3)	0	4 (8.3)	13 (27.1)	48 (〃)
70~79	6 (37.4)	1 (6.3)	0	1 (6.3)	8 (50.0)	16 (〃)
80以上	1 (33.3)	0	0	0	2 (66.7)	3 (〃)
計	302 (55.5)	85 (15.6)	25 (4.6)	35 (6.4)	97 (17.8)	544 (100)

14-23

性別	民選制	任命制	間選制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計
男	166 (62.4)	57 (21.4)	12 (4.5)	14 (5.3)	17 (6.4)	266 (100)
女	136 (48.8)	28 (10.1)	13 (4.7)	21 (7.6)	80 (28.8)	278 (〃)
計	302 (55.5)	85 (15.6)	25 (4.6)	35 (6.4)	97 (17.8)	544 (100)

行政單位가 작아질수록 直接選舉에 依하는 民選制에 支持하는 率이 높아가는 傾向을僻地인 茂朱를 例로하여 살펴보면 道知事 郡守 面長에 對한 民選制 支持率이 각각 35.1% 41.6% 50.6%로서 이러한 傾向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것을 教育程度의 觀點에서 보면 民選制 支持率이 教育程度에 關係없이 大體로 높은데 無學의 境遇만이 36.9%로 가장 낮고 反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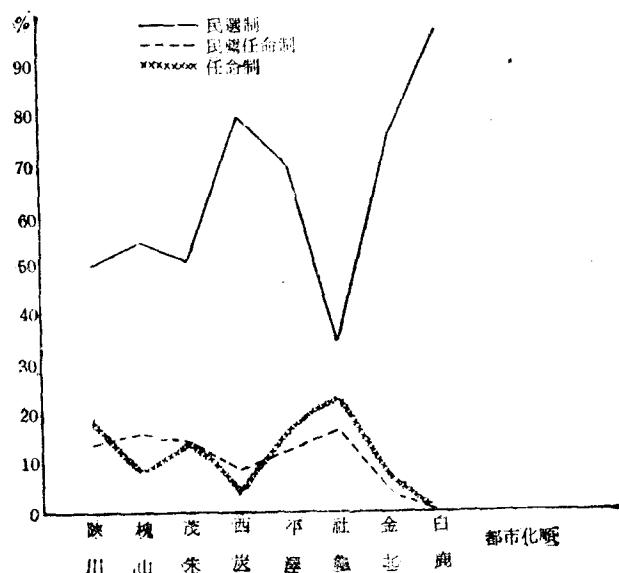
無關心의 程度가 58.3%로 가장 높은데 이것은 無關心이라기보다도 이 問題에 對한 無識에 더 原因이 있을 것 같다. 任命制의 支持率은 極히 弱勢을 보이기는 하나 教育程度에 正比例 해서 增加하는 傾向이 보인다. 여기서도 無關心의 程度는 教育水準에 反比例해서 低下하고 있다.

職業別로 보면 우선 職業의 如何에 關係없이 任命制보다 民選제를 支持하는 率이 높으나 特히 會社員과 學生은 각각 83.3%, 88.9%로서 가장 높으며 土木業과 商業이 각각 40% 45.5%로서 가장 낮은 位置를 차지하고 있다. 任命制支持率은 全體的으로 弱勢이나 土木業 씨비스業 公務員이 각각 40%, 38.5%, 28%로서 가장 比率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年齡別로 보

14-24

區分 地域別	民選制	民薦任命	任命制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計
陝川	32 (49.2)	9 (13.8)	12 (18.5)	3 (4.6)	9 (13.8)	65 (100)
槐山	31 (54.4)	9 (15.8)	5 (8.8)	1 (1.8)	11 (19.3)	57 (〃)
社龜	24 (33.8)	12 (16.9)	16 (22.5)	12 (16.9)	7 (9.9)	71 (〃)
平澤	51 (69.9)	9 (12.3)	6 (16.4)	3 (4.1)	4 (5.5)	73 (〃)
白鹿	61 (96.8)				2 (3.2)	63 (〃)
金北	49 (75.4)	3 (4.6)	5 (7.7)	3 (4.6)	5 (7.7)	65 (〃)
淺朱	39 (50.6)	11 (14.3)	11 (14.3)	3 (3.9)	13 (16.9)	77 (〃)
西虞	58 (79.5)	6 (8.2)	3 (4.1)	2 (2.7)	4 (5.5)	73 (〃)
計	345 (63.4)	59 (10.8)	58 (10.7)	27 (5.0)	55 (10.1)	544 (100)

14-25



면 21 歲 以上의 有權者를 調査한 結果 年齡의 高下에 關係없이 民選制 支持率이 높으며 任命制 支持率은 大端히 낮으나 年齡順에 逆比例하여 減少하는 傾向이 있고 無關心의 比率은 正比例하여 增加함은 上級執行機關의 境遇와 다를 것 없다.

男女性別로 보면 民選制와 任命制 共히 男子가 女子보다 훨씬 높은 比率을 나타내고 있음은 圖表에서 보는 바와 같으나 特히 男子는 民選制 支持率이 62.4%의 高率을 보이는 反面 女子는 無關心의 比率에서 36.4%라는 高率을 보이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最末端 行政單位인 里洞長의 選任方法에 對한 住民의 見解를 알아 보기로 하자.

14-26

區分 教育程度別	民選制	民薦任命	任命制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計
無學	47 (45.6)	2 (2.0)	13 (12.6)	9 (8.7)	32 (31.1)	103 (100)
한글解得書堂	51 (63.0)	13 (16.0)	5 (6.2)	3 (3.7)	1 (11.1)	81 (〃)
國卒	11 (84.6)		1 (7.7)	1 (7.7)		13 (〃)
中卒	120 (63.2)	23 (13.1)	15 (8.5)	6 (3.4)	12 (6.8)	176 (〃)
高卒	27 (57.4)	8 (17.0)	6 (12.8)	4 (8.5)	2 (4.3)	47 (〃)
大卒	52 (70.3)	6 (8.1)	12 (16.2)	4 (5.4)		74 (〃)
大學以上	34 (37.0)	7 (14.0)	6 (10.9)			46 (〃)
	3 (75.0)		1 (25.0)			4 (〃)
計	345 (63.4)	59 (10.8)	58 (10.7)	27 (5.0)	55 (10.1)	544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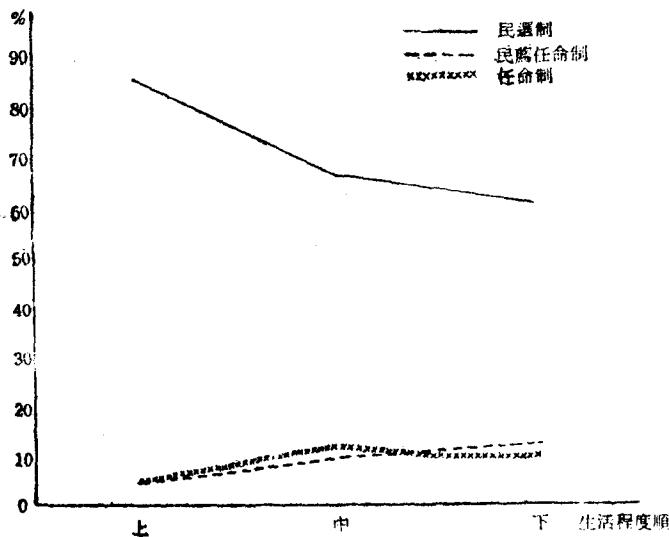
14-27

區分 性別	民選制	民薦任命	任命制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計
男	184 (69.1)	31 (11.7)	32 (12.0)	14 (5.3)	5 (1.9)	266 (100)
女	161 (57.8)	28 (10.1)	26 (9.4)	13 (4.7)	50 (18.0)	278 (〃)
計	345 (63.4)	59 (10.8)	58 (10.7)	27 (5.0)	55 (10.1)	544 (100)

14-28

區分 生活程度別	民選制	民薦任命	任命制	아무래도 좋다	모르겠다	計
上	18 (85.7)	1 (4.8)	1 (4.8)	2 (9.5)		21 (100)
中	122 (66.7)	18 (9.8)	22 (12.0)	7 (3.8)	14 (7.7)	183 (〃)
下	205 (60.2)	41 (12.1)	35 (10.3)	18 (5.3)	41 (12.1)	340 (〃)
計	345 (63.4)	59 (10.8)	58 (10.7)	27 (5.0)	55 (10.1)	544 (100)

먼저 全體的으로 보아서 民選制의 支持率이 總應答者 544 名中 345 名으로 어떤 地方行政執行機關의 境遇보다도 高率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現象은 行政單位가 작아질수록 다시 말해서 政治가 住民의 生活領域에 近接해 오고 交涉이 잣아질수록 自己들이 直接 選出한 사



람이 行政機關의 長이 되기를 더 願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며 한편 「아무래도 좋다」와 「모르겠다」를 合한 無關心한 態度가 다른 이면 境遇보다도 그 比率이 낮은 것으로 보아 이 問題에 對해서는 住民의 關心의 程度가 높고 見解나 價値觀이 比較的 뚜렷하게 形成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任命制와 住民이 薦舉하여 邑面長이 任命하는 方法에 對한 支持率은 각각 10.7% 10.8%로서 비슷한 比率을 나타내고 있고 民選制의 支持率은 大都市인 서울에서 가장 높아서 平均 80%를 示顯하고 있음은 다른 境遇와 다를것이 없다. 이와 같은 事實은 그대로 自治意識의一面을 나타낸다고 보아도 좋겠지만 이것만으로 곧 自治意識을 推定하기 어려운 것이며 選舉에서 投票率이 높은 것으로 반드시 民主政治에 對한 認識이 높다고 斷定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民選制의 支持率이 높다고 하여 自治意識 自體가 높은 水準에 있다고 斷定하기는 어렵다고 보겠다.

教育程度로 보면 民選制에 對해서 高率의 支持率을 보이되 大體로 教育程度에 正比例해서 支持率이 增大하는 傾向을 보이고 있으며 無關心의 比率은 反對로 教育程度에 逆比例해서 減少하고 있다. 任命制에 對한 支持率은 다른 執行機關의 境遇와 마찬가지로 낮은 편이나 大體로 教育程度에 正比例하고 있음을 注目할만 하다.

다시 男女性別로 보면 男女를 不問하고 民選制에 對한 支持率이 높으나 男子가 女子보다 더 高率을 보이고 無關心度는 女子가 男子의 3倍에 達하고 있다. 이와 같은 傾向은 다른 上級 執行機關의 境遇와 大同小異하다.

生活程度別로 보면 民選制에 對한 支持率이 生活程度에 關係없이 高率을 보이되 生活程

度에 正比例해서 上流層으로 올라 갈수록 支持率이 增大하여 上層에서는 85.7%에 達하고 있으며 無關心度의 比率은 그 差異가 基하여 上流와 下流의 比는 9.5% 對 17.4%의 差異를 보이고 있다.(次號 繼續)

〈筆者 本大學院 教授〉